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장소 정체성과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전공

오 신 애

2023년 2월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장소 정체성과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 제주도 원도심 모관지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 승 훈

오 신 애

이 논문을 관광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오신애의 관광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任和淳	
위 원	南玗燮	
위 원	鄭丞勛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12월

The Effect of Local Residents' Social Capital on  
Urban Regeneratio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on Place Identity and Tourism Development  
Support

: Focusing on original downtown(Mogwan district) of Jeju City

Shin Ae Oh

(Supervised by professor Seung Hoon Chu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ourism.

2023.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6
제2장 이론적 배경 .....	9
제1절 도시재생과 관광개발 .....	9
1. 도시재생의 개념 .....	9
2. 도시재생과 연계한 관광개발 .....	12
3. 도시재생 관광개발과 주민참여 .....	16
제2절 사회적 자본 .....	19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	19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	21
3. 도시재생 관광개발과 사회적 자본 .....	24
제3절 장소 정체성 .....	27
1. 장소와 정체성의 개념 .....	27
2. 장소 정체성의 개념 및 특성 .....	28
3. 장소 정체성과 주민참여 .....	31
제4절 관광개발 지지 .....	33
1. 관광개발 지지의 개념 .....	33
2. 관광개발 지지와 사회교환이론 .....	35

제3장 연구설계 .....	37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	37
1. 연구모형 .....	37
2. 가설의 설정 .....	38
1) 사회적 자본과 장소 정체성 간의 관계 .....	38
2) 장소 정체성과 관광개발 지지 간의 관계 .....	38
3) 사회적 자본과 관광개발 지지의 관계에서 장소 정체성의 매개 역할 ...	39
제2절 조사 설계 .....	41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	41
1) 사회적 자본 .....	41
2) 장소 정체성 .....	41
3) 관광개발 지지 .....	42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43
1. 조사대상 지역 .....	43
2. 자료 수집 .....	46
3. 분석 방법 .....	46
제4장 실증분석 .....	49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	49
1. 일반적 특성 .....	49
2. 인구통계학적 특성 .....	49
제2절 측정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	52
1. 측정항목 및 도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	52
2. 구조방정식 측정모델의 평가 - 신뢰도 .....	56
3. 구조방정식 측정모델의 평가 - 판별타당도 .....	58
제3절 연구가설의 검증 .....	60
1. 경로분석을 통한 연구모형의 검증 .....	60
2. 집단별 연구모형의 검증 .....	63

3. PLS-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성 분석 .....	67
제4절 분석 결과의 요약 .....	69
제5장 결론 .....	7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72
제2절 연구의 시사점 .....	75
1. 이론적 시사점 .....	75
2. 실무적 시사점 .....	77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	80
<b>【참 고 문 헌】</b> .....	81
<b>【설 문 지】</b> .....	104
<b>【ABSTRACT】</b> .....	109

## 표 목 차

〈표 2-1〉 도시재생과 관광 관련 선행연구 .....	14
〈표 3-1〉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 .....	43
〈표 3-2〉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단위사업 .....	45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51
〈표 4-2〉 측정항목 및 도구 .....	52
〈표 4-3〉 요인 성분 분석 결과 .....	54
〈표 4-4〉 측정항목에 대한 기술 통계값 .....	55
〈표 4-5〉 측정모델의 평가 - 신뢰도 .....	57
〈표 4-6〉 판별타당도 Fornell-Larcker Criterion .....	59
〈표 4-7〉 판별타당도 Heterotrait-Monotrait Ratio (HTMT) .....	59
〈표 4-8〉 구조방정식의 가설검증 결과 .....	61
〈표 4-9〉 총간접효과 분석결과 .....	62
〈표 4-10〉 특정 경로 간접효과 분석 결과 .....	63
〈표 4-11〉 거주지 구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결과 .....	64
〈표 4-12〉 출생 지역 구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결과 .....	66
〈표 4-13〉 연구모형의 적합성 분석 결과 .....	68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절차 .....	7
<그림 3-1>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을 적용한 연구모형 .....	37
<그림 3-2> 수정된 연구모형 및 가설 .....	40
<그림 3-3>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비전 및 전략 .....	44
<그림 4-1> 측정변수의 외부적재치와 경로효과 분석 결과 .....	61
<그림 4-2>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	62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최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들이 관광목적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김화령·김호철, 2022). 이는 도시가 고유의 환경을 바탕으로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복합체로서, 도시의 관광자원은 관광 매력 요인으로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이은수, 2019). 도시관광은 관광 측면에서 도시가 보유한 도시 내 공간, 매력물, 편의시설 등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를 방문하게 하는 일련의 관광 현상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쇠락한 도시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유사하다(김향자·유지윤, 2000). 따라서 구도심은 도시관광의 배경이 되고, 도시관광을 위한 사업들은 동시에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도시는 지역주민의 정주를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확장하여 도시의 환경 및 역사·문화 자원 등과 연계하여 관광개발이 가능한 어메니티 자원, 즉 관광지로서도 인식되고 있다(이은진·정진원·변병설, 2016).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관광지 개발 혹은 관광자원 개발과의 관련성과 잠재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홍식·한성미·박혜연, 2015). 도시의 자원을 이용한 관광 상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Kim et al., 2013). 다시 말해, 도시재생에서 지역자원의 활용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활성화를 증진한다.

도시는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활동의 무대가 되는 장소로, 정치 또는 행정의 중심지라는 의미와 경제의 중심지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인구 집중으로 인해 비교적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이은수, 2019). 어떠한 도시이든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능과 활동이 집중되어 진 지역이 있는데 이를 도심이라고 한다. 도심은 대개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며, 업무, 상업, 문화, 서비스 교통 등의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추 지역이다(황보민경·이정교, 2008).

도시는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표현인 동시에 인류가 모여들어 만들어낸 여러 생활양식 중

에서 가장 지배적이고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이진희·김구, 2007).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외곽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도심의 기능이 약화하고, 도심지 노후화를 초래하며 도시가 가진 고유한 공간적 속성과 장소들이 소멸하거나 쇠퇴하고 있다(정영환·유진형, 2012). 이로 인해 도시는 인구 유출과 핵심적 도심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김홍식·한성미·박혜연, 2015).

이에 쇠퇴한 도심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재건설, 도시 재구축, 도시재정비, 도시재개발, 도시재생, 도시 부활 등으로 이어지는 도시재생 개념들이 생겨났으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Roberts & Sykes, 2000). 그러나 물리적 정비사업 위주로 진행되었던 관광개발 사업들은 경제 성장과 회복을 위한 단기 전략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하며 지역사회 불균형을 비롯한 다양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존의 공간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통해 도심기능 회복 및 재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것이다(이은수, 2019).

도시재생사업은 해체되었던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향상하고,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진은애·이우중, 2018). 따라서 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높이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신현주·강명구, 2017). 이에 지역주민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사업종료 후 지속적인 운영관리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역할 제고를 목표로 한다(진은애·이우중, 2018).

최근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생전략 중 하나로 관광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자원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보존과 개발의 대상인 동시에,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끊임없이 형성하고 있다(전경숙, 2011). 쇠퇴하기는 하였으나 도심의 중심 기능을 담당했던 구도심에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이 쉬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통해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정영환·유진형, 2012). 강신겸(2001)은 연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정체성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로 인해 경쟁력이 향상되어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Ennis & Douglass(2011)는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관광객 유입을 통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는 구도심 활성화와 도시관광 추진 주체인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구도심 재생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장소 정체성,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을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하여, 제주 도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장소 정체성,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 사이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장소 정체성을 매개로 하는 여러 요인의 인과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실증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장래에 진행될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 가능한 도시관광사업으로 발전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얻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은 인지와 감정, 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Holbrook & Hirschman, 1982)하는 것으로, 인지(Cognition) 요인으로써의 사회적 자본은 지역주민과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수단(Attanasi et al., 2013; Park et al., 2015)으로 여겨지며, 지역주민이 보유한 사회적 자본은 주민의 지지 의도와 참여를 예측할 수 있다. 감정(Affect) 요인으로 장소 정체성은 장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적 관계와 관광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며, 강력하고 긍정적인 장소 정체성은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체성의 확립은 중요하다(Wang et al., 2017).

같은 맥락에서 Kneafsey(2000)는 장소 정체성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관광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주요 특징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역주민 개인의 정체성이 장소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지지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과 사회적 자본 이론을 결합하여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장소 정체성, 관광개발 지지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해 지역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장소 정체성, 관광개발 지

지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 및 가설을 제시한다.

둘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요인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주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이 장소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과 장소 정체성이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넷째, 장소 정체성이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관광개발 지지와의 영향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다섯째, 본 연구모델의 연구가설에 대해 경로별 지역 요인을 기준으로 군집화된 표본 간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로 구성하였다. 첫째, 공간적 범위는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의 사업대상 범위인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거주자 및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고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된 2022년을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다. 이 기간 중, 설문 조사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셋째, 내용적 범위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사업대상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장소 정체성, 관광개발 지지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 장에서 논의하게 될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사회적 자본, 장소 정체성,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을 시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표본설계 및 조사 방법 그리고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 및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실증분석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전항에서 서술한 연구의 범위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그림 1-1]과 같다.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적인 영향 관계 파악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고, 표본의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한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여 각기 다른 집단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 경로 효과를 도출하였다.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도시재생과 관광개발	사회적 자본	장소 정체성	관광개발 지지



제3장 연구설계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조사 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제4장 실증분석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가설 검증	분석 결과의 요약 및 논의



제5장 결론		
연구의 요약	이론적·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 및 제언

〈그림 1-1〉 연구 절차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수 요인인 사회적 자본, 장소 정체성, 관광개발 지지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등 문헌 연구를 통해 요인들의 개념 및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문헌 연구를 통해 각 요인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계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항목들은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 목적에 적합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설정된 가설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매개변수의 역할을 파악하고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주요 분석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수집된 표본에 대한 빈도분석과 각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및 요인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항목은 실증분석인 경로분석을 위하여 Smart PLS (v. 3.3.9)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도시재생과 관광개발

#### 1. 도시재생의 개념

재생(再生)의 사전적 의미는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한다. 영어로 ‘regeneration’은 일정 기간 악화된 상태 이후 이를 좀 더 활동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전적 의미는 재생이 처치와 같은 단기 처방적 성격의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전략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임을 의미한다(유광민·장병권, 2012).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학술적 정의로는 도심기능의 회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재개발 및 재건축 방식과 달리 종합적인 시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오후·장인수·황희연, 2016). 또한 도시재생은 물리·환경적 측면에만 집중된 단일 방식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비사업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이일희·이주형, 2011).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은 도심으로의 인구 유입을 통해 살만한 도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도심 관리 정책의 하나로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Balsas, 2000). 도시 재생에 대한 이해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1950년대에는 재건, 1960년대에는 회복, 1970년대에는 갱신, 1980년대에는 재개발, 1990년대에는 재생의 시기로 구분한다(유광민·장병권, 2012).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재생전략을 경제 기반형(산업단지, 항만, 역세권 등)과 근린 재생형(쇠퇴 중심지가

및 근린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주민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마을기업 창업, 사업 시행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어 추진하고 있다(유광민·장병권, 2012).

도시재생은 시대변화에 따라 개념이 변화하고 있으며, 도시개선(urban renewal)의 개념에서 출발하여(Hawley, 1963), 이후 1980년대 도시재개발의 방향으로 변화되었다(Cole, 1987).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1980년대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문화 공간, 문화 자원, 문화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문화 주도적 도시재생 전략을 채택하였다(Lak et al., 2020). 최근에는 경제·사회·문화적 재생도 포함된 종합적 재생으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Güzey, 2009; Gu & Zhang, 2021).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를 비전으로 주거복지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활력 및 공동체 회복, 그리고 사회통합을 정책목표로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와 도시 공간의 혁신, 그리고 주민과 지역사회 주도의 사업추진을 추구한다(김화령·김호철, 2022).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바, 도시 쇠퇴지표라고 하는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황종아·강지연, 2021).

도시는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활동의 무대가 되는 장소이면서, 인구의 밀집으로 인해 비교적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Mwaniki, 2018). 도시는 성장에서 쇠퇴에 이르는 도시의 생애주기에 따라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외연적인 확산과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도심의 업무나 주거 기능들이 동반 이동하며, 도심이 쇠퇴하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도심이 낙후되어 구도심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지역 구도심의 쇠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는 도시가 성장에서 쇠퇴에 이르는 도시 생태학적 과정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김홍식·한성미·박혜연, 2015).

구도심은 과거 도시의 중심으로서 주요 기능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중추적인 장소였으나, 도심 외곽지역의 급속한 재개발과 도심 노후화의 방치로 인해 도심의 기능이 약화 또는 소멸하여 보유하고 있던 고유한 공간적 속성과 장소들이 사라진 지역을 의미한다(정영환·유진형, 2012). 구도심이 신시가지 조성과 행정 및 교육시설의 이전으로 인해 기존의 기능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걸쳐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도

시문화의 거점으로 도시 서비스산업의 상당 부분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잔존하고 있어 구도심 기능의 재생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이은수, 2019). 이에 구도심은 도시재생의 중요한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구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환경적, 경제적, 생활 문화적으로 부흥, 또는 재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정철모·이용재, 2013). 이렇듯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대도시 지역의 외연적 확산을 막고, 도심 쇠퇴 현상을 예방하며, 도심지역의 재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은 물론 환경보전까지, 균형있게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종구, 2009; 양덕순·강영순, 2008). 따라서 구도심 재생의 목적은 도심부의 물리적 환경개선, 도심부 상주인구의 확보, 경제적 활성화, 도시 정체성 확보 등이라 할 수 있다(Putnam, 2000).

최근 도시재생사업 경향을 살펴보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문을 주민의 참여를 통해 개선하는 총체적 근린재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나영·안재섭, 2017). 근린재생 사업은 중심가로 및 그 배후지역 등의 쇠퇴한 상업지역과 환경이 열악한 근린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특색을 고려하여 침체한 중심시가지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근린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 유지를 목표로 한다(김권수, 2014; Park, 2013).

이에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에서는 지역자원이나 지역의 유산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면서 도시를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Lak et al., 2020). 이는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아닌 지역 방문자에게 사회적·정서적으로 더 큰 의미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Ujang & Zakariya, 2015). 다시 말해, 쇠퇴한 도시환경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회복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주민이 떠나지 않고,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특히 근린재생사업 유형 중에서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은 도심 활성화의 개념적, 내용적 측면에서도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 관련 정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김홍식·한성미·박혜연, 2015). 즉 도시재생은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에 있어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물리적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인서·나주몽, 2018). 이와 같이 도시재생이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와 함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이유리·이명훈, 2018).

## 2. 도시재생과 연계한 관광개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일부 지역들이 최근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최재우, 2018). 이는 도시가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 방문하는 매력적인 장소로 인식 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가 지닌 고유성과 특수성이 관광자원으로써 도시의 잠재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현상이자 문화적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의 목적 대상지로서 도시가 새롭게 변화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광은 오랜 시간 국가 및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강조됐으며, 공공이 주도하여 국가 및 지역단위의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자원이 지닌 매력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하향식 방식이 관광개발의 보편적인 구조를 형성해왔다(이시은·심창섭, 2019). 그러나 관광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관광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관광의 범위와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관광개발 방식 및 목표가 변화하고 있다(Goranczewski & Puciato, 2011).

관광개발은 관광객의 만족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일련의 활동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Timothy, 2014). 관광개발은 관광자원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광자원을 통해 관광 행동이 촉진된다고 보는 것과 관광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관광자원 및 시설의 활용뿐만 아니라 관광 만족에 기여하는 무형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까지 포괄하는 두 가지 견해로 해석되고 있다(김성혁·김상희, 1997). 즉 관광자원에 이용 가치를 부가시켜 유·무형의 수용 자세를 개발하고 정비하는 일들이 모두 관광개발에 포함되는 사업내용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관광개발 사업의 목적은 첫째,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진 시키고 둘째, 관광자원 이용자를 보호하고, 셋째,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넷째, 관광 공간을 제공하면서,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 균형 발전 및 효과적인 활용, 다섯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McIntosh et al., 1995).

Fodness(1994)는 관광개발이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동기부여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편익을 제공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이처럼 관광개발은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와 문화, 환경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친다(Ko & Stewart, 2002; Nunkoo & Ramkissoon, 2011; Perdue et al., 1990).

최근 도시재생은 관광산업과의 선순환 구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도시는 오랜 역사와 문화로 이루어진 공간이며, 문화가 풍부한 도시는 관광지로서 매력에 높다. 즉, 도시는 고유의 환경과 관련하여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복합체이며, 도시의 관광자원은 관광 매력 요인으로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김홍렬·장윤정, 2013). 이렇듯 지역의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은 관광객을 해당 지역으로 유인하여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재생 정책 수단이다(Domsic, 2015).

초기 도시재생이 주로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의미한다면, 최근에는 경제·사회·문화적 재생도 포함된 종합적 재생으로 그 의미가 보다 확대되어 가고 있다(Gu & Zhang, 2021; Güzey, 2009). 즉, 도시재생과 관광개발 사업이 도시 관광자원 연계라는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과 더불어 문화적 관점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유광민·장병권, 2012).

이렇듯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으로 활용되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희자원 활용을 통한 도시의 기반 및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김영·정규식·천성봉, 2009). 다시 말해,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물리적 환경을 활성화하고 유지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서 관광의 기회를 가지게 한다(Paddison, 1993).

그 결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외래관광객 유치에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게 된다(오동훈·권구황, 2007). 특히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수행될 때 더 큰 효과를 나타내며, 관광객은 이 지역을 하나의 도시브랜드로 인식할 수도 있다(Ferretti & Grosso, 2019). 이를 통해 관광으로 인한 방문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김세일·임화순, 2020).

이러한 도시관광의 사례로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주 한옥마을과 부산 감천마을과 같은 지역이 관광형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이룬 바 있다(김향자, 2013). 이에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역사·문화·산업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낙후된 이미지를 재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재평가받고 있다(김영환, 2008).

이렇듯 쇠퇴한 지역의 도시관광을 이용한 도시재생 전략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인구의 유입, 도시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인하고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풍부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하다(서익진, 2016; 이은진·정진원·변병설, 2016). 이처럼 도시관광은 도시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관광 활성화

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따라 도시관광이 활성화되면 산업 및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며, 중산층 거주자들이 쇠퇴지역으로 재이동하여 도시가 활기를 되찾게 된다(김홍식·한성미·박혜연, 2015; Edwards et al., 2008; Law, 1992). 즉, 도시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은 소득증가 및 고용 창출이 유발되어, 경제적 측면에서 활력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 고유의 정체성이 구축되고, 이는 다시 도시재생과 도시관광에 영향을 주어 상생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도시와 관광을 접목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영국과 네덜란드 등의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Ashworth & Page, 2011; Jansen-Verbeke & Van Rekom, 1996). Law (1992)는 문화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 컨벤션, 전시 등의 이벤트 전략을 통한 도심 활성화 정책을 기술하였으며, Getz(2008)는 관광 이벤트 역할 중 도시 지역개발 효과를 강조하였다. 반면 국내의 도시관광 관련 연구는 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정강환(1995)은 관광 축제와 대형 이벤트를 도시 활성화의 방안으로 강조하였으며, 오덕성(1998)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래의 <표 2-1>은 도시재생 측면에서 관광을 연구한 선행 논문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표 2-1〉 도시재생과 관광 관련 선행연구

연구주제	선행연구
도심 활성화와 관광전략 연구	오덕성(1998), 정강환(1995), Getz(2008), Law(1992)
도시재생사업 정책평가	이진희·임상연·정윤희·박민숙(2020), Miles & Paddison(2005)
도시재생 개발전략 성공 요인	김경아·문태훈(2017), 김경아·문태훈(2019), 김지인·민제호(2021), 김희진(2021), 정재원·한주형(2021)
도시재생 연구 동향과 언론의 관심도	노현준·전용석(2019), 박희정(2019), 최영석(2020)
관광객 관점에서 도시재생 지역 관광객의 방문 의도 및 행동 의도	이재곤·위주연(2019), 조환기(2020), 신주하·이승곤(2021), 이승준·박영근(2021)
도시재생 지역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애착도	박인영·배기철(2019)
지역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태도나 지지 및 참여 의사	김나영·김진강·김수진(2020), 김희진(2020), 이승훈(2019), 임경환(2020), 장영수·김이태(2021), 정승훈(2019), Yarker(2018)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이처럼 선행연구는 도시재생과 관광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시재생과 지역관광을 통한 도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최근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이란 미래 세대의 관광 경험 기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과 환경, 문화 등을 보전하고, 동시에 현세대의 관광객이나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으로(장혜원·박지은, 2021), 이는 지역사회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최영국, 2000).

관광개발 사업은 개발주체에 따라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지역주민 공동주도형, 민관합동형 등으로 나뉘며(하성규, 2021), 1990년을 전후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개발이 보전보다 중요시되고 개발과 보전이 대립 관계로 인식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개발과 보전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세계관광기구(UNWTO · 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미래 세대의 관광 기회를 보호하고 증진 시키고 동시에 현재 세대의 관광객과 지역사회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문화의 보존과 필수적인 생태적 과정, 생물 다양성과 생물 지원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적·사회적·심미적인 요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여영숙, 2009). 이는 적정한 이용의 규모나 속도를 환경의 재생산능력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 하며,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향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양덕희, 2007). 다시 말해 관광과 환경의 관계는 관광이 우수한 환경을 매력 요소로 활용하고, 환경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 즉,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은 지역사회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두어 과도한 관광개발을 지양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 및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승담·강신겸, 2001; Jurowski et al., 1997).

Choi & Sirakaya(2005)는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은 생태학적으로 책임이 있고, 사회적으로 양립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특히 지역사회를 위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화된 개발 방식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은 지역사회 기반 관광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광목적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Lee, 2013).

이렇듯 구도심 도시재생에 있어 지속 가능한 관광은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의 관점에서(김보미·손용훈·이동근·이현진, 2019) 평가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이란 특정 과정이나 현상에 대해 환경의 파괴가 없는 지속적인 유지 능력을 의미하며, 인간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양상의 연속성과 관계된 체계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Allen & Hoekstra, 1993). 즉,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재생은 도시의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성의 포괄적·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행위나 수단이 될 것이다(Sasaki, 2010).

### 3. 도시재생 관광개발과 주민참여

도시재생은 쇠퇴기에 접어든 지역을 쇠퇴기 이전의 활황기(活況期) 상태로 되돌리려는 정책(Landry & Woods, 2012)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시공동체가 활력을 얻고, 나아가 지역주민이 생활하는 장소 안에서 진정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관점에서 주민참여란 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실행 과정상 제기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공동체를 구축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계이다(신현주·강명구, 2017). 또한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그 지역의 삶의 질을 제고 하려는 행위로(김민석·이우형, 2013), 사업의 주요 이해당사자(stakeholders) 중 하나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주민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 더욱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윤성훈·박천보, 2012).

또한 주민참여는 행정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해관계를 지닌 주민이 특정 정책 또는 대안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으로써(윤성훈·박천보, 2012), 도시재생사업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으로 중요하다(신현주·강명구, 2017).

다시 말해 도시재생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공공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구성원인 주

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성순아·오후·황희연, 2015).

최근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람과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오후·장인수·황희연, 2016). 특히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역에 형성된 커뮤니티의 회복과 유지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안정적인 생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 지역 커뮤니티 정체성을 회복하고 커뮤니티의 질과 역량을 향상시켜 사업종료 이후에도 주민들이 스스로 근린환경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관리주체가 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재생을 실현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김호철, 2017).

이를 위해 근린재생 사업에서는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주민대학 운영, 주민 모임 활성화, 주민공모사업 추진 등 다양한 유형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증대되어 사회적 재생, 지속 가능한 재생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오후·장인수·황희연, 2016; 조필규, 2010).

특히 구도심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목적지이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이 사는 삶의 터전으로(오정학·윤유식, 2009), 지역의 관광지를 개발하게 되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여가의 공간을 관광객과 함께 공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또한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관광지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이양림·김영미, 2018). 즉, 구도심 재생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관광객에게는 관광 활동의 장소이지만, 지역 사회 자체가 관광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관광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파급효과의 가장 큰 대상이, 구도심 재생을 위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는 사업추진에 따라 주민 각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이 자발적,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전달할 권리를 가지며, 구성원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계획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정봉섭·여정태·김재호, 2011).

따라서, 구도심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관광개발 관점에서의 주민참여는 실제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므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시은·심창섭, 2019). 이는 주민참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역공

동체 활성화와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적 역량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과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김승근, 2009). 마을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높았던 마을이 다른 마을에 비해 사업성과가 높았다는 평가(송미령·성주인, 2005)가 그러한 예시이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내재적 발전 잠재력을 현재화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참여는 관광개발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역 내 공동체와의 소통과 관계성 등 사회적 요인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경화, 2015).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제공 등의 경제적 요인은 주민참여에 동기부여를 하는 등(김학실, 2013),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에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개선은 주민참여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 주체들 간의 갈등으로 진행이 어려울 때,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써의 주민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김경주·강기용·김경민, 2010; 김화령·김호철, 2022).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저조하거나 참여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 그리고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할 때, 공공자원에 대한 무임승차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한 다수의 공평한 이익분배에 앞서 일부 주민 집단이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려는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면, 주민참여에 따른 혜택보다는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이승중·김혜정, 2011).

## 제2절 사회적 자본

###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학자 제임스 콜먼(Coleman, 1988)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같이 생산적이며 그것이 있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고유한 특정 목적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전유성(專有性, appropriability)”이라고 하였다. 전유성이란 비공식적 조직, 신뢰, 문화, 사회적 지원, 사회적 교환, 사회적 자원, 내재성, 계약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및 회사 간 네트워크와 같은 개념 아래서 연구된 많은 것을, 하나의 관념으로 포용하는 당위성을 가진 개념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Adler & Kwon, 2002).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인 내적 자원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그룹과 조직에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며(Fukuyama, 1995), 그들 사이의 협력을 허용하는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일련의 비공식적 가치 또는 규범의 존재로 정의된다(Fukuyama, 2000). 비록 경제적 영역을 지향하지 않더라도 구성원의 경제적 목표와 목표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내 행동에 대한 기대로도 정의한다(Sensenbrenner & Portes, 2018).

또 다른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행위자들 사이에 내재한 자원으로써 해석하는 관점도 있다. Bourdieu(2018)는 자본에 대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의 세 분야에서 논의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을 “서로 친분이 있거나 인정하는 다소 제도화된 관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거나, 연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합해진 자원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Burt(2000)는 사회적 자본을 금융이나 인적 자본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친구, 동료 또는 보다 더 일반적인 관계라거나 네트워크 안에서 그런 관계를 맺을 기회라고 본다. Portes(1998)는 이것을 소셜 네트워크나 기타 사회구조의 구성원 자격을 통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을 “사회관계망 위에 내재된 정보, 신뢰, 그리고 상호 간의 규범(Woolcook, 1998)”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내적 자원과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그 자원을 가진 행위자들의 관계 맺음과 외적 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된다(Adler & Kwon, 2002). 여기서 Adler & Kwon(2002)이 지칭한 사회적 자본의 외적 관

계란 한 주체가 다른 주체와 맺고 있는 관계(네트워크) 속에서 얻거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지칭하는 것이며,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의 기제를 기반으로 사회구성원들 간의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이끄는 무형적 자산으로 사회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의 동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최길수·정영운, 2014; 강덕제·김정현, 2020; Knack & Keefer, 1997; Woolcock, 1998).

한편, 사회적 자본을 커뮤니티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Falk & Kilpatrick, 2000; Knack & Keefer, 1997; Woolcock, 1998) 바라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사회 네트워크에 존재하고 있는 의식과 규범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Woolcock & Narayan(2000)은 경험에서 나온 그 힘의 원동력이 정책입안자와 실무자 사이의 분열을 해소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이동성, 경제조직의 경쟁우위, 심리적 및 신체적 활동, 정치참여(Burt, 2000; Lin, 2017, 2001; Portes, 1998) 등을 포괄하며, 인적 및 문화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용한 자원이다(Lin & Erickson, 2008). 이는 지역사회 응집력, 사회적 통합 그리고 참여 확대에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 유효한 개념이 된다(Wilks, 2011).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집단이 가진 권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이 가능한 사회구조의 기초가 됨으로써(Brown & Ashman, 1996),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oolcock, 1998). 이렇듯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요소, 그리고 역할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가 상이하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은 Putnam(1993)이 제시한 도덕적 의무와 규범, 신뢰로 이루어진 사회적 가치, 그리고 자발적인 결속을 의미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이다.

이보다 먼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Bourdieu(1986)로서 계급론적 사상을 바탕으로 각 계급과 고유한 관계가 있는 자본의 세 가지 차원을 경제, 문화 및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수행되는 사회적 투쟁의 자원이 되는 것으로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상징적인 권력이나 상징적인 교환을 통해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세 가지 차원의 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권력이나 교환이 바로 계급투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으며(김종기·김진성·뢰정철, 2012), 1980년대 후반부터 개인 및 집단행동의 다양한 변화를 설명하는 사회적 요소로서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Lin & Erickson, 2008), Bourdieu(1986, 2018), Coleman (1988), Putnam(1993)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그 개념과 유용성이 발전하였다.

##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대부분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추구하는 생산적 사회구조의 축적된 자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상호 교류와 인식을 통한 친근감, 지속적인 결속을 통한 개인과 집단에 혜택을 주는 기회의 총합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양민호·고진영·김명일·김기성, 2018; Bourdieu, 2018). Healey(1998)는 사회적 자본을 지역 내 관계망의 질로 정의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와 협력적 측면의 신뢰와 구조로 인식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대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Bourdieu (1986, 2018)의 경우, 경제 자본 및 문화 자본과는 구분되는 자본의 형태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형태인 의무와 기대, 정보채널, 사회적 규범에 의한 합리적인 행동이 가능한 사회구조의 패러다임을 위한 행동 자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 등의 사회 조직이 가지는 특징과 관련지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하고 협력 함으로써 정치·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Putnam(1995)에 따르면 호혜성의 규범과 시민참여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공동체에서 자발적 협력이 더 쉽게 달성될 수 있다. 즉, 자발적 협력은 사회적 자본에 의해 촉진되는 것으로,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자발적 협력체계 형성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그가 제시하는 사회적 자본의 효과는 첫째, 시민들이 집단적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하며, 둘째, 공동체가 매끄럽게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공동체 내 연결성을 강화하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더욱 굳건히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집단을 응집시키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관광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태도 및 인식을 조절하는 역

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구조에서 개인 간의 연결은 사회적 네트워크이며,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호혜성과 신뢰성의 규범이 사회적 네트워크와 함께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된다(Putnam, 2000).

반면 Fukuyama(1995)는 사회적 자본을 어떤 사회나 사회 일부분에서 형성된 신뢰를 기반으로 생성된 해당 지역사회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커뮤니티 내에서 사람들의 가치, 태도, 신념, 규범 및 인식뿐만 아니라 상호성, 공유 및 신뢰를 측정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개발의 필수적인 인지 구성요소(Grootaert et al., 2004)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렇듯 사회적 자본은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연구되어 왔지만, 그 의미와 유용성은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Putnam(1993)의 사회적 자본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그가 제시한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의 정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은 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적 개념으로 발전되었다(Kim et al., 2013; Jeon & Cheong, 2014). 즉, 사회적 자본을 공동체 활력의 사회적 핵심 지표로 보아 신뢰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가치로 보았으며, 사회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신뢰가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창조하고, 다시 신뢰를 강화하면서 이는 결국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의 창조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지속된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신뢰와 규범을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본 연구로, Coleman(1998)은 사회적 자본을 기대와 의무, 사회적 규범, 정보채널의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Kim et al.(2011)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사회참여로 설정하고, 사회, 국가 등에 대한 일반적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와 같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기반 또는 근린 수준의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였다. Kim et al.(2013)은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 신뢰와 참여, 네트워크, 사회적 포용력 정도로 개념화하여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Chun & Kim(2009)은 일정 지역 내 주민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조정 및 협동을 총칭하는 신뢰, 네트워크, 참여,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복합체로 정의하였다.

Putnam(1993)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신뢰, 사회적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성되고, 신뢰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반응과 특정 사회적 배경에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그리고 다른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려는 의도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그는 또한 신뢰의 존재가 인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증가시키는 전제 조건이라고 믿으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결속을 만들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규범은 구성원이 인지하는 공통 행동 기준과 대인 관계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말하며 공식적 규칙과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 시스템을 형성한다. 즉, 사회적 규범은 상호적이며 단기적 이타주의와 장기적 이기주의의 조합으로 간주하며(Bullen & Onyx, 2005), 개인의 집단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Woolcock, 1998).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과 집단을 연결하는 추상적 관계를 말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공통의 믿음에 기초하여 가족, 이웃, 지역사회 간에 구축된 자원봉사 기반의 사회적 연결이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원들은 공통의 가치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Fukuyama, 2000), 이를 통해 구성원 간의 정보 교환 측면에서 공통 규범의 준수와 사회적 일관성 유지를 보장한다(Bullen & Onyx, 2005).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측정이 어려운 비가시적인 요인들은 지역사회에서의 조직, 모임, 관계의 형상이라는 가시적 네트워크 형태와 비교를 통해 관찰이 가능하다(권경희, 2018).

이처럼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은 공통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구조적 요인과 인지-관계적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구조적 요인은 공식적인 제도, 법칙의 규칙, 조직구조 등 관계의 네트워크와 총체적 패턴을 모두 포함하고, 관계적 요인은 개인 간의 신뢰, 공유된 규범, 상호 간의 인지, 그리고 인지된 의무 등을 의미한다(고동완, 2009).

종합하면 Putnam(1993)의 이론과 같이 일상적 시민의식의 형성이 규범적 사회적 자본이라면, 더 적극적인 사회관계망 형상이 네트워크 관점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뢰 측면의 사회적 자본은 밀접한 사회관계망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 간 협력체계의 실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규범, 네트워크, 신뢰 단계의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할수록 더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현대사회는 낯선 사람끼리 모인 사회적 관계일지라도 자발적인 규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하며, 신뢰와 상호 간의 배려, 그리고 사회구성원 간의 연결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Siisiäinen, 2003).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더 커지게 된다(Coleman, 1988).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러한 힘의 원천으로 신뢰와 규범이라는 원(circle)을 형성하여 순환



하게 되는데,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우리 사회는 불신과 규범의 위반, 고립과 무질서 또는 정체된 현상을 반복하게 되고, 선순환이 유지된다면, 사회구성원 간의 수준 높은 협력과 호혜성, 신뢰하는 시민 활동과 모든 구성원이 행복해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다(Putnam, 1993).

### 3. 도시재생 관광개발과 사회적 자본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도시의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한 재생에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상호작용, 공유된 규범, 그리고 공유된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뢰와 협력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결속력이나 관용 등의 가치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Kleinhans et al., 2007). 사회적 자본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정성문·강신겸, 2015). 이에 최근 커뮤니티 참여와 도시재생을 둘러싼 논쟁과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Hibbitt et. al., 2001).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개인 차원의 사회적 자본과 집단 차원의 사회적 자본으로 나누어진다(김정현·고동완, 2016). 개인 차원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개인에게 형성된 네트워크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다른 네트워크 구조가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반면, 집단 차원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집단의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 집단행동 및 참여와 협력을 어떻게 끌어내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Adger, 2003; Besser, 2009). 국내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와 주민 간의 네트워크 및 신뢰, 공동체 의식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크기와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고, 해외에서는 규범, 신뢰, 집단 내 협력, 정보공유가 지역사회 참여 요인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증진 방안에 관심을 두었다(Park & Feiock, 2002).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는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 자본 이론 적용 또는 활용 방안(서순탁, 2002; 최영출, 2004), 도시재생사업으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관계(Jeon & Cheong, 2014), 주거지 재생사업에서의 주민의 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Ro & Koo, 2012)도 있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의 집단 간 차이,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관계,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재생사업 과정의 활동 등 다양한 변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 분야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와 지지, 참여 의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진숙·서영수, 2016; 박용순·제상호, 2015; 오상운·조문수, 2015). 이 밖에도 김기철(2013)은 사회적 자본에 따라 관광 이해관계자의 관광개발 정책 수용 태도와 성과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박용순과 제상호(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분야 중 축제와 관련하여, 허성란과 노경희(2012)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지역축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과 거버넌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Kim & Shim(2018)은 한국 보문관광단지 내의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지는 사회적 자본과 인지적 사회적 자본이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혁신을 통한 성과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를 통해,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관광 단지 내 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신뢰가 지식의 공유 및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해외 연구자들은 주로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의 효과측정을 위해 주민의 삶의 만족도 및 사회적 응집력 또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자 하였다(Jeon & Cheong, 2014; Kim et al., 2011; Putnam, 1993; Ro & Koo, 2012; Woolcock & Narayan, 2000). 이 외에도 Jones(2005)는 지역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자본과 관광개발 지지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생태관광에 주목하여, 사회적 자본이 높은 주민들은 환경 보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고, 관광 관련 단체 행동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 구성 요소들이 관광지 지역주민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요인으로, 지역사회 기반 관광자원이나 상품 개발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Zhang et al.(2020)은 중국의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 이외에도 집단 효능, 공동체 소속감, 공동체 응집력,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평가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이 요소들은 중국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광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에 대해 지역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관광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다차원적 특성을 밝히고,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을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일부로 보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한편 관광객들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한다면, 개인의 편익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자본까지도 형성시킨다는 견해도 있다(Wolf et al., 2015). 이는 관광이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 효용성 강화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며, 관광에 대한 욕구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선행변수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이윤주·박창환·이훈, 2020).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은 공동 규범에 협력하고 준수하려는 의도를 향상해(Cox, 1995),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시너지를 촉진하고(Okazaki, 2008),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Macbeth et al., 2004; Pongponrat & Chantradoan, 2012).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사회적 자본 형성과 같은 사회적 측면의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광학 범위에서 특히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확장된 분석 결과를 제시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 제3절 장소 정체성

#### 1. 장소와 정체성의 개념

장소란 개인 또는 단체의 경험이 반영되어 대상자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인식하는 공간을 의미한다(Canter, 1997). 장소는 공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의미가 부여된 구체적인 개념으로(Tuan, 1975), 개인, 문화,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장소가 사용자에게 따라 다양한 정체성의 장소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Ujang & Zakariya, 2015).

여기서 정체성이란 원래 동일성과 구별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으로써 장소 정체성은 동일성 즉, 연속성의 성질과 구별성 또는 고유성의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Lewicka, 2008),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고 그 연속성을 유지하며, 자존감이나 자기효능감을 발생하는 수단으로 본다(Twigger-Ross & Uzzell, 1996). 이러한 견해에 따라, 특히 환경 심리학자들은 장소에 대한 동일성을 종종 인간의 특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Lewicka, 2008).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며(Kyle et al., 2004; Tuan, 1979), 장소란 자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의 조합이라고 본 것이다(Hosany et al., 2017; Proshansky, 1978). 그런가 하면, 감성이나 상징적인 원인에 의해 인간이 가지는 장소에 대한 가치가 장소 정체성이며, 이것을 감성적 애착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Williams et al., 1995).

장소는 인간 일상의 중심으로 인간의 삶은 장소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Relph, 1976). 인간은 장소에서 경험과 지각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개인과 장소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인 '장소애(topophilia)'를 통해 자신의 관심 영역으로서 장소를 형성한다(Cresswell, 2004; Wang & Chen, 2015). 인간과 환경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장소'에 대하여 인간은 경험, 관계, 생각과 인지를 더하면서 감정을 부여하고, 개인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장소와 연관성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며 특정 장소에 대한 유대감과 애착 또는 만족감을 표시한다(박수연·김영주, 2016; Wang & Chen, 2015).

인간에게 장소에 대한 애착은 개인, 집단, 문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며(Tuan, 1979), 인지적 요소가 행동과 통합될 때 나타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반응이다(Low &

Altman, 1992). 집단적 반응은 대체로 지역 내 공간에서 지역주민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지역에 대해 형성되는 심리적 유대감이며, 지역주민들은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통적인 유대감이 곧 장소 애착으로 표현된다(김나영·김진강·김수진, 2020).

다시 말해 어떤 장소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은 그 장소에 대한 애착을 낳기 때문에(Prayag & Ryan, 2012), 특히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지지 정도는 장소 애착의 정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해된다(Manzo & Perkins, 2006).

McCool & Martin(1994)는 연구에서 거주기간과 지역사회 애착심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지역주민일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국내 다수의 연구에서도 장소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관광개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광개발에 대한 참여 의지가 강해진다는 결과가 검증되었다(강신겸, 2001; 고동완·김현정, 2003; 송상섭, 2010; 조진호·최열, 2018).

다른 한편으로, Manzo(2005)는 장소가 가지는 물리적인 특성보다는 그 장소에서의 개인의 의미 있는 경험이 장소 애착 형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장소 애착이 반드시 시간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경우, 장소에 대한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장호찬, 2010). 다시 말해 특정 장소에서의 의미 있는 경험은 장소 애착 형성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아에 대한 개념적인 영속성을 달성하기 위해 애착이라는 정서와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Ujang, 2017), 사람과 장소 사이의 정서적 결속이나 연결이 이어져 있다는 주장에 관해 다수의 연구자 사이에 이견은 없다(Giuliani, 2002; Hidalgo & Hernandez, 2001).

## 2. 장소 정체성의 개념 및 특성

개인과 특정 장소 사이의 긍정적인 감정적 유대는 장소 애착이라 해석되며(Manzo & Perkins, 2006), 장소 애착은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 물리적 장소에 대해 개인이 형성하는 정서적 연결을 의미한다(Milligan, 1998). 그것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반영하며,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현상으로(Warf, 2006), 동시에 자신

과 타인을 구별하는 인지 과정이다(Hauge, 2007). 장소에 대한 애착은 특정 지역에 대한 물리적 및 기능적 필요성 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 및 심리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개념적 접근이 시작된다(김동근, 2011; Ujang & Zakariya, 2015).

장소 애착은 본질적으로 사람과 장소 사이의 정서적 유대로써(Devine-Wright, 2009), 이에 관한 연구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차원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소 정체성과 장소 의존성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 구조로 간주한다(Prayag & Ryan, 2012; Williams & Vaske, 2003; Yuan et al., 2019). 즉, 인간과 장소 사이의 감정적인 유대는 장소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과 소속감이 드는 장소 정체성과 특정 장소가 어떠한 활동을 하기에 좋은 장소로 평가되는지를 보는 장소 의존성으로 분류되며(Devine-Wright, 2009), 이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는 물론 개인의 친(親) 관광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진숙·서영수, 2016; Williams & Vaske, 2003).

장소 애착을 장소 정체성과 장소 의존성의 2차원 개념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Gross & Brown, 2008; Williams et al., 1992), 사람과 장소 간 정서적 유대관계로 해석하여 정서적 요인과 함께 신념이나 지식과 같은 인지적, 행동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단일 구성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Jorgensen & Stedman, 2001). 특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장소 애착을 단일 개념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측정 문항을 장소 정체성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Eusébio et al., 2018; Kang et al., 2018; Stylidis, 2020).

Relph(2007)는 연구에서 장소 정체성이 장소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물리적 환경, 개인적인 활동, 의미 등이 상호 연관성을 갖고 이를 통해 장소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장소 정체성의 개념에 대한 관점을 상호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도시 공간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주체의 소속감을 바탕으로 집단 간 관계를 형성하는 무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Bernardo & Palma-Oliveira, 2012). 장소를 잠시 방문한 관광객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오래 머물거나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활동과 의미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장소 정체성은 특정 장소에 대한 취향 및 활동을 표현하거나 장소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Dixon & Durrheim, 2000).

장소 정체성은 개인이 환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개념이며(Proshansky, 1978; Vaske & Kobrin, 2001),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 또는 개인의 해석

및 생각과 관련된 감정으로서 장소나 환경에 대한 개인의 강한 정서적 애착으로 정의된다(Proshansky et al., 1983). 이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고 특정 장소의 가치에 중요하게 작용하며(Williams & Vaske, 2003), 태도, 기억, 가치, 아이디어, 감정, 의미 등을 포함하는 사람과 장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Anton & Lawrence, 2014). Proshansky와 그의 동료들은 우리 인간이 속한 물리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자아 정체성이며 장소 정체성은 그 하위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McNeill & Venter, 2019; Murtagh et al., 2012; Proshansky et al., 1983).

정서적 요소로서 장소 정체성은 인지적인 요소와 행동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Bagozzi, 1992; Wang et al., 2020). 특히, Wang et al.(2020)은 장소 정체성이 지각된 혜택 및 비용과 지역주민의 지원 간 관계의 특성을 변경할 수 있는 매개자로 규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으며, 국내 일부 선행연구들도 관광 분야에서 장소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측정하며 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권장욱·김장원·이재은, 2017; 이혜린·이훈, 2014).

장소 정체성은 특정 장소에 대한 취향 및 활동을 표현하거나 장소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며(Dixon & Durrheim, 2000), 장소 정체성이 강한 지역주민일수록 지역 활동 참여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Anton & Lawrence, 2014). 특히 축제 관광의 관점에서 장소 정체성은 정서적 애착의 한 형태로, 장소에 대한 관광객의 정서적 유대에 의해 형성되며 축제 또는 행사에 대한 관광객 충성도에 기여한다(Lee et al., 2012). Derrett (2003)은 지역축제의 진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거주자들의 장소 정체성이라고 했다. 이렇듯 긍정적인 장소 정체성은 공동체 정신을 함양시키고, 지역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관광에 대한 거주자의 정서적 관계와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거주자의 장소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Wang et al.,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체성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Baumeister & Leary, 1995; Hagger et al., 2007; Mannetti et al., 2004), 장소 정체성은 지역 환경의 사회적 및 물리적 자원이 지역주민의 요구와 선호에 대해 만족스러운 상황이 될 때 비로소 긍정적으로 형성된다.

장소 정체성은 또한 지역관광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역주민의 장소 정체성이 부족할 때, 지역사회의 관광개발은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Kneafsey, 2000). Ballesteros & Ramírez(2007)는 스페인 남부의 광산 역사가 있는 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장소 정

체성을 조사하였는데, 해당 지역은 풍부한 지역 광산 자원 등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광산 역사에 대한 자부심 부족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가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 신동주와 강유진(2016)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지역 애착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인식과 혜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최영희·이원철·이훈(2005)은 동굴관광에 있어 지역주민의 애착심이 동굴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주고, 동굴관리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관광객의 행동, 특히 재방문 및 목적지 추천 의사와 같은 충성도를 예측하는 핵심 변수로 장소 정체성 또는 목적지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사용되고 있다(Hosany et al., 2017). Gu & Ryan(2007)은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있을 때, 관광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진흥과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보았다. Bernardo & Palma-Oliveira(2012)는 장소 정체성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화와 관점을 요약하고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은 장소와의 정서적 연결 측면에서 장소 정체성에 대한 이해'라고 보았으며, 장소 정체성을 장소 애착과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이에 인지-감정-행동(C-A-B)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의 논리적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도 장소 정체성을 감정적 연결로 개념화하여 행동 의도를 이끄는 핵심 지표로 보았다.

### 3. 장소 정체성과 주민참여

지역주민은 거주지역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지각과 개인의 신념, 필요 욕구, 경험 등 내부적인 자극이 결합되어 지역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지역의 사업과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는 지지나 반대 등 행동적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류인평·김영주, 2011; 양승필·서용건, 2015).

서울특별시 한남1동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린 환경의 만족도는 장소 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장소 애착은 마을 만들기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아·김병석, 2014). 다시 말해, 장소 애착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참여도를 측정하는 도구로도 강조되고 있다(최승담·강신겸, 2001; 김성민, 2015; 박진아·김병석, 2014; 최열·임하경, 2005). 광주광역시의 추억의 7080 충장축제의 사례를 보면, 축제 참가자들의 축제 영향 인식과 장소 애착 간의 영향 관계 연구를 통해, 축



제 영향 인식 중 상권역량 재생 효과, 경제·물리적 재생 효과, 그리고 계층적 편견 회복 효과가 장소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상규·정강환·임명재, 2017).

이렇듯 장소 정체성을 포함하는 장소 애착은 선행변수로서 주민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하정봉·길종백, 2013), 장소 애착의 구성요소인 장소 정체성, 장소 의존성, 사회적 친분은 내발적 지역관광 개발 참여 의사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고, 이는 주민들의 강한 애착심이 지역관광 개발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송상섭·한범수, 2012).

한편,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장소 애착이 물리적 및 비물리적 요소와 젠트리피케이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조진호·최열, 2018).

이렇듯 선행연구를 통해 장소 정체성의 감정적 표출이 장소 애착의 형태로 나타나며(Proshansky et al., 1983; Anton & Lawrence, 2014), 이것이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장소 애착과 정체성은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송상섭·한범수, 2012; 이지혜·이명훈·전병혜, 2009). 특히, 장소 애착 중 장소 정체성이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축제 참여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원섭·최상수, 2011).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서 장소 정체성을 포함한 장소 애착은 주민참여도와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제4절 관광개발 지지

### 1. 관광개발 지지의 개념

관광개발 지지는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한다고 인식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광개발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지를 의미한다(송기현, 2010).

관광산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도 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산업이다(Kim et al., 2013). 이에 관광산업의 발전과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 지지 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Gursoy et al., 2009).

관광개발 계획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는 정치적 과정으로 인식되며,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Jamal & Getz, 1999). 이에 관광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관광기획자 및 정책 의사 결정자에게 있어 지역주민들의 인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Shtudiner et al., 2018). 따라서 관광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와 소통,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가 수반되어야 한다(Gursoy & Rutherford, 2004).

구도심 재생에서 도시는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관광 활동의 목적 대상지로서, 관광개발 지지는 관광개발 결과 및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된다(조광익·김남조, 2002).

이에 구도심 재생을 위한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 못지않게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며(김혜영, 2015),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 영향인식과 주인의식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는 중요하다(임기성, 2013). 즉 지역주민이 지역에 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지지할 때 관광으로 인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김희진, 2020).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관광개발은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할수록 심리적 주인의식은 높아지며, 지역주민의 심리적 주인의식이 강할수록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광개발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희진, 2020). 또한 지역주민의 심리적 주인의식은 지역성을 지켜나가며, 관광개발 사업을 지지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초가 된다(김혜영, 2015). 연구에서 농촌관광 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주민의 심리적 주인의식이 높을수록 농촌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지지할 때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듯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지는 지역을 위한 개발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지와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의미하며(양승필·서용진, 2015),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인식이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 의사에 중요한 예측 변수가 된다(Gursoy et al., 2009; Lee, 2013).

즉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지지를 파악한 후 관광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역에서의 중요한 과제이다(박진희·김미경·이희찬, 2004). 이는 지역주민이 관광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 높은 지지를 보일 수 있으나,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혜택과 비용이 불균형적이라 인식하게 되는 경우, 부정적 태도가 형성되고 낮은 지지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계성, 2014; 윤지현·이환봉, 2008). 또한 주민들이 관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관광개발을 지지하기 위해 방문객을 환대할 가능성이 높다(Moghavvemi et al., 2017). 다시 말해 지역주민 개인이 인식하는 관광개발에 대한 이득이 있다면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는 높아진다. 이렇듯 관광을 통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생활 수준 향상의 정도는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를 예측한다(Sharma & Gursoy, 2014).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관광 영향의 긍정·부정적 측면을 탐색한 것으로 시작되었다(Lee, 2013). 여기서 관광 영향(tourism impact)이란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접촉 등 관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무형의 긍정 또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는 관광 효과를 의미하며(고동완, 2001), 관광 영향 인식(perception of tourism impact)은 관광지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관광 현상의 결과에 따른 주관적 판단 또는 관광 영향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의미한다(고동완, 2001; 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관광 영향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으로 구분하고, 다시 긍정·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되고 있다(조광익·김남조, 2002; Dyer et al., 2007; Gursoy & Rutherford, 2004; Wang et al., 2020).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는 Doxey(1975)의 연구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유광민·김기완·김남조, 2007), 지역 관광개발의 추진과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인식되어 많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다(김보경·조광익, 2016; Ap &

Crompton, 1993; Vargas-Sanchez et al., 2015). 특히 지역주민 참여와 관광개발 지지  
에 장소 애착이 높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지혜·이명훈·전병혜, 2009), 이  
는 관광개발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관광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장소 애착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오정학·윤유식, 2009).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주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여 왔다. 하지만, 대부분 관광개발에 있어 관광개발 자체에 대한 지역주  
민들의 영향 인식에 초점을 두고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추가적인 예측 변수의 제시  
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2. 관광개발 지지와 사회교환이론

본 연구에서 관광개발 지지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행동에 참여하고  
자 하는 의도로, 인지와 감정(정서)에 따른 행동 의도로 보았다. 관광 분야에서 행동 의도란  
방문객이 방문 지역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지각한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대상에  
대한 태도로, 특정한 미래에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신념이나 의지를 말한다(Bouling  
et al., 1993). 즉 행동 의도는 개인이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체 결정 확률로 측정되며  
(Ajzen & Fishbein, 1980), 행동 의도는 인간 행동의 가장 정확한 예측 변수이다.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교환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유광민·김기완·김  
남조, 2007). 사회교환이론은 지역주민들과 관광개발의 교환관계를 논리적이고 직관적으로  
설명한 이론으로(Ap, 1992), 교환의 대상은 자원이며 관광에 대한 지지나 환대와 같이 유형  
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교환은 대상에 대한 평가로 지역주민들의 교환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에 따라 관광개발을 지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사회교환이론은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의 혜택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태도에 초점  
을 맞추어 접근하고 있다(정유준·이주형, 2013). 자연적으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는  
관광객의 관광 활동에 대해 교환과정을 경험하는 지역주민들의 그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로  
간주된다(유광민·김기완·김남조, 2007; 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Ap, 1992; Jani,  
2018; Jurowski et al., 1997; Gursoy et al., 2002; Wang et al., 2020).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관광개발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

계를 통해 자신과 지역사회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심리적 상태로 사회교환을 통해 발생한다(박진희·김미경·이희찬, 2004).

사회교환이론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지지에 대한 접근의 핵심은 비용-편익(cost-benefit)이며, 개인들은 보상과 비용을 평가한 후에 교환을 선택하게 된다(Homans, 1961; Gursoy et al., 2002). 그리고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허향진·현용호·허성철, 2005). 지역주민들은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교환과정에서 편익을 얻게 된다면, 기꺼이 관광객과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며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추가적인 관광개발도 지지할 것이다(García et al., 2015; Lee, 2013). 즉, 관광개발을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동시에 긍정적 태도를 표출한다(이수진, 2019).

반면 지역사회 기반 관광개발이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 인식한다면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관광개발을 반대할 것이다(Gursoy et al., 2002; Lee, 2013). 즉,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지역주민은 관광개발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고,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정유리·정성문·강신겸, 2017). 이에 사회교환이론은 이해관계자들의 비용-편익의 관계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관찰하며 접근하고 있다(김민지·남재철·이승우,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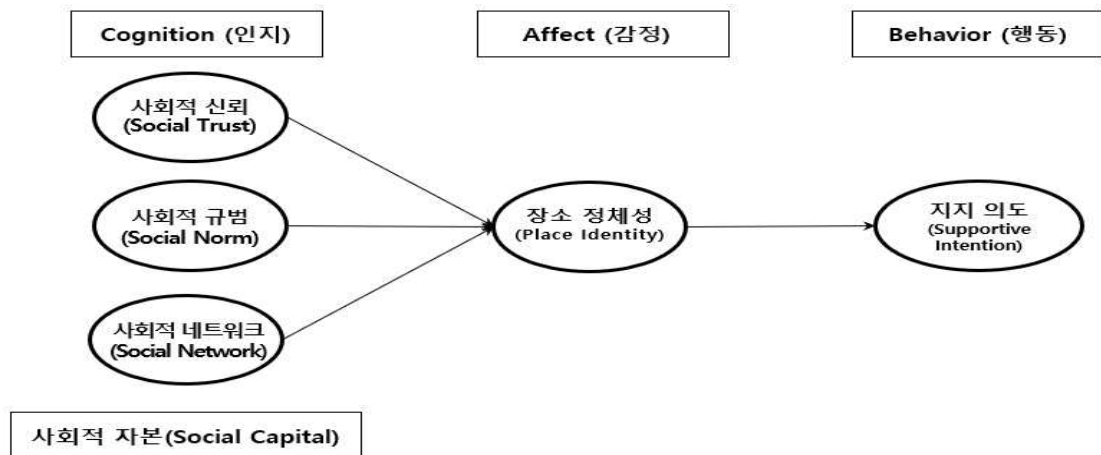
관광개발 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기대에 못 미친 정책을 펼칠 경우에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류용걸, 2014). 또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가 실제 관광개발 결과에 있어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 인식으로 인하여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조광익·김남조, 2002; 임화순·고계성, 2012), 관광개발 사업 초기 단계와 다르게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며 점차 약해지기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동완·김현정, 2003; 윤설민, 2015). 따라서 관광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관광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Harrill, 2004; Vieira et al., 2016). 또한 관광개발로 인한 편익과 비용 항목은 지역의 특성, 관광자원 특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의 변화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 제3장 연구설계

### 제1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에 관한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 (Holbrook & Hirschman, 1982; Holbrook & Batra, 1987)과 사회적 자본 이론을 결합하여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에 대한 관계를 검증하고자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요인은 사회적 신뢰, 사회적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를 독립변수로, 장소 정체성을 매개변수로, 관광개발 지지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인지(cognition)-감정(affect)-행동(behavior)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장소 정체성, 관광개발 지지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3-1〉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을 적용한 연구모형

자료: Kuo, N. T., Cheng, Y. S., Chang, K. C., & Hu, S. M.(2021)

##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을 연구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연구모형과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수정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요인별 연구가설의 설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자본 및 장소 정체성 간의 관계

Bryden & Hart(2004)은 커뮤니티 개발에서 사회적 자본과 장소 정체성 관계를 주요하게 다루었으며, Meng & Liao(2014)는 커뮤니티 거버넌스에서 사회적 신뢰와 정체성의 역할을 연구했다. Cuba & Hummon(1993)은 다양한 사회 공간 환경, 인구통계학적 특성, 상호작용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사회적 참여 및 공공 행동이 지역주민의 장소 정체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특정 장소에 대한 행동 규범을 따르고,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집단이나 사회와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이라 하였다.

사회적 자본과 장소 정체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도출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이 장소 정체성의 선행변수라는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다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과 장소 정체성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되므로 장소 정체성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다차원적인 구조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사회적 자본의 다차원적 요소를 1차 예측변수로 사용한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Ali-Hassan et al., 2015; Kuo et al., 2021)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사회적 신뢰는 장소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사회적 규범은 장소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사회적 네트워크는 장소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장소 정체성과 관광개발 지지 간의 관계

Kneafsey(2000)은 장소 정체성은 관광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주

민의 장소 정체성이 부족할 때 관광개발 사업은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Manzo & Perkins (2006)는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지지 정도는 장소 애착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고동완·김현정, 2003; 박경옥·신문기·류지호, 2015; 이후석, 2011; 한승훈·김진옥, 2018), 또한 강영애·유광민·김남조(2012)와 신동주·강유진(2016)은 지역주민의 장소 애착과 관광개발 지지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에 장소 정체성과 관광개발 지지 간에 유의한 관계가 도출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 장소 정체성은 관광개발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사회적 자본과 관광개발 지지 간의 관계에서 장소 정체성의 매개 역할

사회적 자본이 장소 정체성과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Nunkoo & Gursoy, 2012; Prayag et al., 2013). 즉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집단 정체성이 강해지고 그에 따른 공통의 태도와 집단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정서적 요소로서 장소 정체성은 인지적인 요소와 행동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agozzi, 1992; Wang et a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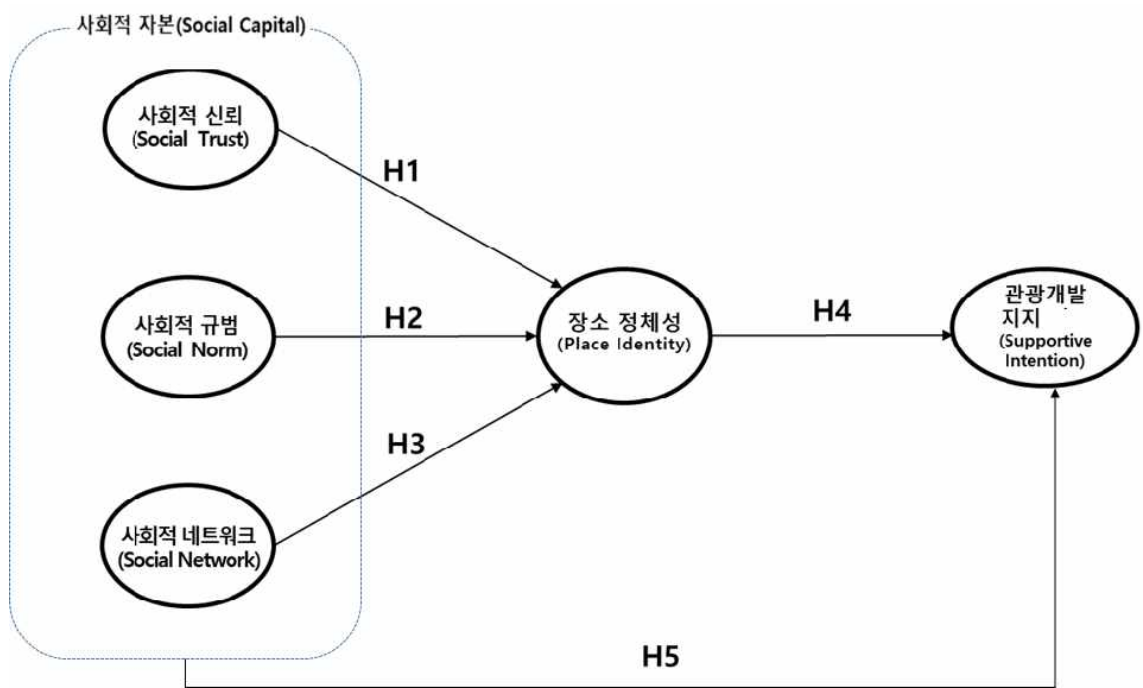
본 연구는 주민들의 사회적 자본과 장소 정체성이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관광개발의 넓은 범주 안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하위 변수를 구체적으로 또 별개의 변수로 고찰하였다. 다시 말해 장소 정체성이 도시재생사업을 포괄하여 관광개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냄으로써 장소 정체성의 역할을 밝혀내고자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 지역인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소 정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다섯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 장소 정체성은 사회적 자본과 관광개발 지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 설정 과정과 각 변수를 소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이들 사이의 구조 관계를 수정·설계하여, 가설과 함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래의 <그림 3-2>이다.



<그림 3-2> 수정된 연구모형 및 가설

## 제2절 조사 설계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는 쇠퇴한 구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을 적용하여 장소 정체성이 매개변수로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받아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두었던 장소 정체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거주지역 및 출생 지역을 분류 기준으로 하여 경로효과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란 Putnam(1993)이 제시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개념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지역주민의 참여에 따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확장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은 Jones(2005), Thammajinda(2013), 그리고 Kuo et al.(2021) 등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전체 13개 항목(신뢰 5개, 규범 4개, 네트워크 4개)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 2) 장소 정체성

장소 정체성이란 사람과 장소 간 정서적 유대관계로 신념이나 지식과 같은 인지적, 행동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단일 구성개념이라는 Jorgensen & Stedman(2001)의 견해와 장소 애착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장소에 대한 정서적 연결 측면에서 장소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 Bernardo & Palma-Oliveira(2012)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정서적 애착으로 인한 연결로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소 정체성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Eusébio et al., 2018; Kang et al.,2018; Stylidis, 2020)있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장소 정체성 항목을 Winterton & Warburton (2012), 그리고 Hammitt et al.(2009)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6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 3) 관광개발지지

관광개발 지지는 주민이 지역사회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동 의도는 개인이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체 결정 확률로 측정된다(Ajzen & Fishbein, 1980).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호응이자 참여하려는 의도로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 지지 항목을 Boley et al.(2014), Moghavvemi et al.(2017), Olya & Gavilyan(2017), McGehee & Andereck(2004) 등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 10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 장소 정체성,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각 항목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 ‘매우 그렇다’는 5로 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 조사대상 지역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일반 근린재생 사업지역으로 2015년 12월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옛 제주성이 있던 원도심의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등 4개동을 중심으로 2017년 12월 활성화계획을 고시한 지역이다(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2021). 지리적으로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과거 제주도의 행정·경제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으로 옛 제주의 중심시가지 역할을 하였다. 1977년에 제주시 신제주지역의 개발계획 확정,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제주신보, 2015.5.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 인구감소대책 마련 등을 통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산지천, 동문시장, 칠성로 상점가, 중앙로지하상가 등 문화, 쇼핑, 상업 등의 중심지로 관덕정 광장 등 역사문화자원과 동문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를 활용한 원도심 중심 기능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었다(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2021).

〈표 3-1〉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

구분	현황 및 도시재생 목표 전략
지역자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연계자원 : 산지천, 동문시장, 칠성로 상점가, 중앙로 지하상가</li> <li>- 주변 개발현황 및 계획 : 탐라문화광장, 명품시장 육성사업,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제주의향 3단계 개발사업</li> <li>- 역사문화자원 : 관덕정, 제주목 관아, 제주성지, 김만덕 기념관, 오현단, 향사당, 성내교회, 중앙성당</li> </ul>
쇠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공공기관 이전, 제주대 병원 이전 등으로 인한 도심기능 쇠퇴</li> <li>- 상주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상권의 침체,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 심화</li> <li>- 폐공간 증가 및 방치로 슬럼화 진행</li> </ul>
지역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지 높음</li> <li>- 제주시 문화 집회의 중심지로 상시 집회가 열리던 곳</li> <li>- 문화, 쇼핑, 상업 등 중심 기능 확보 잠재력 높음</li> </ul>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덕정 광장 등 역사문화자원과 동문시장 등을 활용한 원도심 중심 기능 회복</li> </ul>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도시 조성</li> <li>- 기존 상권별 특화전략을 통한 상생발전</li> <li>- 산지천과 연계한 임항로 경관관리 방안 모색</li> <li>-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li> <li>- 통학로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li> </ul>

시간이 누적된 역사에 의한 지역 정체성 회복 및 자원의 활용과 창조 활동 유발을 통한 역사·문화·관광도시,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삶의 질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전략계획하에 “오래된 미래, 모관 : 옛것을 살려 미래를 일구다”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7대 전략사업과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3-3>은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비전 및 전략을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의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추진된 단위사업 중에 역사경관 재생사업인 관덕정 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 도심올레 조성사업과 지역경제 재생사업인 칠성로 문화야시장 조성사업이 관광개발 사업과의 관련성이 높다(정승훈, 2019).



〈그림 3-3〉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비전 및 전략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본 사업과 연계한 역량강화 사업(주민대학), 주민 워크숍,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1, 2차에 걸친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역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등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양건·이상호·백승현, 2015).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7대 전략 및 단위사업 내용은 다음의 <표 3-2>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이후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이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업종료 이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재쇠퇴가 예상되는 경우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뉴제주일보, 2021.06.30.).

2021년 12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종료되었고 현재는 사업종료 이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으로 발굴되거나 양성된 주체 및 사업의 성과들을 지역과 연계하기 위한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후속 운영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표 3-2〉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단위사업

7대 전략에 대한 단위사업 구성		
전략	내용	단위사업
역사경관재생	◦ 원도심의 역사경관 재생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 회복	◦ 관덕정 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 도심 올레 : 이야기로 만든 옛길(이야기 길)
문화예술재생	◦ 문화예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행복한 도시 창출	◦ 도시재생 상생마당, 원도심 기억의 공유 공간
어메니티재생	◦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 어메니티 회복	◦ 주민참여형 원도심 가로쉼터 조성, 보행·가로환경
주민정주재생	◦ 주민정주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인프라 개선 및 새로운 지역공동체 구축	◦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교통주차재생	◦ 교통시스템 혁신을 통한 도시 접근성과 쾌적성 확보, 보행자 중심의 도시 창출	◦ 주차시설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안내 시스템 도입, 전기 자전거 활용 기반 구축
지역경제재생	◦ 새로운 경제 주체들의 발굴·정착을 통한 가치 중심의 지역경제 창출	◦ 창업 및 성장 지원 인프라 조성, 관덕정 광장과 연계한 칠성로 문화야시장, 사회적 경제 지원
재생기반마련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염두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 주체역량강화, 원도심 재생 지속화 기반 구축
<b>제주시 원도심의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b>		

## 2. 자료수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비확률표본 방식의 하나인 판단 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지역 내 주민협의체, 상인회, 제주도 시재생지원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와 함께 2명의 숙련된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직접 방문하여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설문에 응하게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배포된 오프라인 설문지는 총 200매이며 이중 195매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응답 및 일관성이 떨어지는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0매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에는 138명이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138매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사전분석에 활용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설문 응답지는 총 328매였으며, 이들 중 코딩 과정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5매의 응답지를 제외한 후, 총 323건의 표본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 3. 분석 방법

가설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매개변수의 역할을 파악하고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주요 분석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집된 323개의 표본에 빈도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한 기술통계 분석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등의 평가를 거친 후, 4개의 경로에 대한 가설검증 및 다중그룹분석 과정을 거쳐 매개변수를 포함한 변수 간의 영향력과 예측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경로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의 평가와 4개의 가설검증을 위한 첫 번째 분석을 목표로 하고, 표본을 각기 다른 조건에 따라 두, 세 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고, 상기 연구모형을 적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다중집단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집단 간 특정 경로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 경우 적절한 이론적 또는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공통요인을 기반으로 하는 공분산구조방정식모형(CB-SEM, Co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은 각 요인에 대한 구조 모형을 미리 확정적으로 가정하고, 수집된 데이터가 가정된 모형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위한 구조방정식이다. 이와 달리 최소자승법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PLS-SEM,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은 기존의 확정적인 구조 모형에 수정을 가한 탐색적인 연구수행이나,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를 찾고자 하는 연구에 더욱 적합하다 (Hair et al., 2011).

공분산구조방정식모형(CB-SEM)의 모형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일반 선형회귀분석에서와 같이 데이터에 대한 정규성을 충족해야 하지만, 사회과학의 특정 이론 개발 단계에서 정규성을 충족하는 데이터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러한 이유로 공분산구조방정식모형(CB-SEM)을 채택하는 많은 데이터 분석 연구에서 계수( $R^2$ ) 값이 낮거나, 모형 적합도를 맞추기 위해 측정 지표(문항)를 무리하게 삭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Hair et al., 2012). PLS-SEM과 CB-SEM은 모두 내생변수의 효과 값( $R^2$ )과 경로계수(표준화  $\beta$ )의 분산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으면서도 구조 관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PLS-SEM은 이론의 개발 단계에서 측정 지표(문항)를 유지하기 쉽도록 외부적재값을 높게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성을 까다롭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 즉, PLS-SEM의 분석과정은 총분산의 주성분을 기반으로 하여, 모형의 추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추정계수의 예측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기존의 CB-SEM과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모든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여러 요인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데에 더욱 유연함을 발휘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PLS-SEM 분석 방법의 이러한 장점은 기존의 예측 지향 연구에서 자주 언급된 표본 크기와 관련된 문제나 데이터 특성과 관련된 PLS-SEM의 유연함 외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중요성-성능 매트릭스 분석(importance - performance matrix analysis), 응답 기반 세분화를 위한 유한 혼합 부분 최소 제곱(finite mixture partial least squares for response-based segmentation),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s), 비-선형 효과(non-linear effects), 계층적 구성 요소 모델(hierarchical component models), 판별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 of correlations) 등의 잠재적인 기능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Ali et al., 2018).

이렇게 다양한 PLS-SEM 구조방정식의 접근법은 특히 환대 및 관광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다양한 이론개발에 있어 PLS-SEM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



세이며,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에 더 적합한 접근방법으로 보고 있다(Rigdon, 2016; Sarstedt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관광개발 지지를 행동 의도로 가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 프로그램에 적합한 Smart PLS(v. 3.3.9)를 활용하였다. 또한 기술통계 분석과 빈도분석을 위하여는 SPSS 25.0을 사용하였다.

## 제4장 실증분석

###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주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제주시 원도심 지역인 4개 동의 거주민은 일도1동 (2,486명), 이도1동 (7,648명), 삼도2동 (8,210명), 건입동 (9,079명)으로 총 27,423명에 불과하다. 2016년 해당 4개 동의 거주인구는 총 30,715명이었으며, 5년간 약 10%의 거주인구가 감소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거나 사업체가 있어 생활의 상당 부분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권자들 역시 도시재생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보고 표본에 포함하였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원도심의 전통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본 집단에 대한 개별 항목에 대한 설문을 통해 설문 참여자가 실제 원도심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생활하는지 등의 거주지와 출생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 2.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수집된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4-1>에 수록된 바와 같다. 먼저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109명으로 33.75%를, 여성은 214명인 66.25%를 차지하여,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약 2배가량 많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결혼 여부를 보면 기혼자가 223명(69.04%)으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92명(28.50%)은 미혼이고, 8명(2.50%)은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 기타 군으로 분류하였다. 연령대는 30대와 40대의 참여가 비교적 높아 각각 74명(22.91%)과 88명(27.24%)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0대가 65명(20.12%), 60대가 56명(17.34%), 20대는 40명(12.38%)이 참여하여, 비교적 고른 분

포를 보였다. 참여자들의 교육 수준 정도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129명(39.9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자가 68명(20.43%), 고등학교 졸업자는 57명(17.65%), 대학원 졸업자는 46명(14.24%), 대학 재학생은 13명(4.02%), 그리고 제시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타 그룹이 12명(3.72%)의 순으로 나타나, 대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을 보이는 참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의 직업은 기타를 포함하여 총 9개의 직업군으로 분류하였다. 가장 많은 참여자는 자영업자로서 94명(29.10%)이고, 전문직 혹은 관리직이 53명(16.41%), 사무직(회사원) 46명(14.24%), 기타 직업군 38명(11.76%), 판매/서비스직 35명(10.84%), 주부 32명(9.91%), 은퇴자 12명(3.72%), 학생 7명(2.17%), 농림 축산어업 등 1차산업 종사자 6명(1.86%)의 순을 보였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부터 800만 원 이상까지 총 9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200~300만원 미만은 101명(31.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100~200만원 미만 67명(20.74%), 300~400만원 미만 53명(16.41%), 100만 원 미만 52명(16.10%)으로 나타났다. 한편, 400~500만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18명(5.57%), 800만원 이상이 13명(4.02%), 500~600만원 미만 11명(3.41%), 600~700만 원 미만 5명(1.55%), 700~800만 원 미만 3명(0.93%)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자들의 지역분포는 제주도 원도심 거주자가 184명(56.97%)으로 그 외 지역 거주자 139명(43.03%)보다 많으며, 이들의 출생 지역으로는 제주도 내 비원도심 지역 출생자가 139명(43.03%)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원도심에서 출생한 사람은 87명(26.93%), 그리고 도외에서 출생한 사람은 97명(30.03%)으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5년 미만을 최소 기간으로, 최장은 25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참여자 중 가장 많은 89명(27.55%)이 25년 이상을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1년~5년 미만 거주자가 82명(25.39%)으로 많았으며, 5년~10년 미만은 62명(19.20%), 20년~25년 미만은 37명(11.46%), 10년~15년 미만은 31명(9.60%), 끝으로 15년~20년 미만 동안 거주한 참여자는 22명(6.8%)으로 집계되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모두 150명(46.44%)이며, 비경험자는 173명(53.58%)이었다. 비경험자를 제외한 150명의 유경험자 중 가장 많은 수인 117명(36.22%)이 '도시재생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3명(7.12%)은 '도시재생 교육 및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였고, 10명(3.10%)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09	33.75	결혼 여부	미혼	92	28.50
	여성	214	66.25		기혼	223	69.00
나이	20대	40	12.38		기타	8	2.50
	30대	74	22.91	거주 기간	1-5년 미만	82	25.39
	40대	88	27.24		5-10년 미만	62	19.20
	50대	65	20.12		10-15년 미만	31	9.60
	60대 이상	56	17.34		15-20년 미만	22	6.81
학력	고졸 이하	57	17.65		20-25년 미만	37	11.46
	전문대학 졸업	66	20.43	25년 이상	89	27.55	
	대학 재학	13	4.02	월수입	100만원 미만	52	16.10
	대학교 졸업	129	39.94		100-200만원 미만	67	20.74
	대학원 졸업	46	14.24		200-300만원 미만	101	31.27
	기타	12	3.72		300-400만원 미만	53	16.41
	직업	전문/관리직	53		16.41	400-500만원 미만	18
농/임/축/어업		6	1.86		500-600만원 미만	11	3.41
사무직/회사원		46	14.24		600-700만원 미만	5	1.55
학생		7	2.17	700-800만원 미만	3	0.93	
판매직/서비스직		35	10.84	800만원 이상	13	4.02	
주부		32	9.91	출생지	제주 원도심	87	26.93
자영업		94	29.10		제주 기타지역	139	43.03
은퇴자	12	3.72	육지		97	30.03	
거주지	기타	38	11.76	참여한 도시재생 사업	주민협의체	10	3.10
	제주 원도심	184	56.97		교육설명회	23	7.12
사업 참여 경험	제주 기타지역	139	43.03		사업/프로그램	117	36.22
	있음	150	46.44	해당 없음	173	53.60	
	없음	173	53.56	<b>합계</b>	<b>323</b>	<b>100.00</b>	

## 제2절 측정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 1. 측정항목 및 도구에 대한 기술통계 및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인 설문 문항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 개념인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3개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인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 그리고 종속변수인 관광개발 지지(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관광개발 지지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주요 변수는 총 5개로 각 변수의 개념 정의 및 측정 도구로 활용된 설문 문항은 다음의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2> 측정항목 및 도구

항목	변수명	측정 도구
사회적 신뢰 (Social Trust)	ST_01	이 지역의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하다.
	ST_02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들은 나를 가까이 도와준다.
	ST_03	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신뢰한다.
	ST_04	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대표자를 신뢰한다.
	ST_05	나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에 지자체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규범 (Social Norms)	SN_01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 규범을 인식하고 준수하고 있다.
	SN_02	지역주민들은 공공 사업에 가까이 협력한다.
	SN_03	나는 공공 사업에 대해 이웃과 좋은 협력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SN_04	나는 이 지역 주민들과 암묵적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이이다.
사회적 네트워크 (Social Network)	SNW_01	나는 지역사회 단체, 동호회, 동창회 등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SNW_02	나는 이웃과 상호 교류하는 것을 좋아한다.
	SNW_03	나는 급한 일이 생기면 가족 외에 도움을 요청 할 주변 사람이 있다.
	SNW_04	나는 매년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공활동(봉사활동 등)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항목	변수명	측정 도구
장소 정체성 (Place Identity)	PI_01	이 지역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다.
	PI_02	나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지 않다.
	PI_03	나는 이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낀다.
	PI_04	나는 이 지역의 생활방식을 좋아한다.
	PI_05	나는 이 지역이 매우 친숙하다.
	PI_06	나는 누가 이 지역에 대해 묻는다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관광개발 지지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STD_01	이 사업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STD_02	이 사업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 지역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STD_03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STD_04	관광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STD_05	관광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원도심이 지속 가능한 관광지가 되었으면 한다.
	STD_06	관광개발 사업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해 나갔으면 한다.
	STD_07	관광개발 사업의 진흥에 동의하며 기꺼이 협력하겠다.
	STD_08	관광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활동을 하겠다.
	STD_09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장려해야 한다.
	STD_10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 사업을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총 29개 문항에 대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한 요인추출 분석을 실시하였다. KMO 및 Bartlett의 검정 (적합도 0.905)을 통해 유의수준(0.000)과 공통성이 모두 충족되었다. 최초 요인부하량은 ST\_05(0.461)를 제외하고 모두 0.50 이상으로 추출되었으며, 주성분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베리맥스(Varimax) 회전 추출을 통한 누적 분산의 설명력은 62.719%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 개념을 구성하는 총 13개 문항은 사회적 신뢰(ST\_01~ST\_05) 5개 문항, 사회적 규범(SN\_01~SN\_04) 4개 문항, 사회적 네트워크(SNW\_01~SNW\_04) 4개 문항으로 정리되었으며, 장소 정체성 측정 도구는 6개 문항, 관광개발 지지는 10개의 문항으로 총 29개로 수렴하였다.

〈표 4-3〉 요인 성분 분석 결과

잠재 변수와 각 구성 문항 수	변수명	구성요소					
		1	2	3	4	5	
사회적 자본 개념구성	ST_01	.117	.710	.254	.087	.002	
	사회적 신뢰 (Social Trust)	ST_02	.120	.679	.149	.201	-.079
	ST_03	.263	.681	.129	.087	-.030	
	ST_04	.339	.693	.202	.078	-.034	
	ST_05	.398	.514	.170	-.074	.061	
	사회적 자본 개념구성	SN_01	.025	.137	.133	.052	.737
	사회적 규범 (Social Norms)	SN_02	.120	.212	.069	.122	.674
	SN_03	.057	.576	.212	.315	.409	
	SN_04	.007	.279	.294	.442	.499	
	사회적 네트워크 (Social Network)	SNW_01	.151	.238	.204	.656	.281
	SNW_02	.225	.148	.215	.728	-.007	
	SNW_03	.158	.031	.045	.728	-.179	
	SNW_04	.098	.079	.266	.670	.233	
	장소 정체성 (Place Identity)	PI_01	.075	.253	.697	.208	-.038
PI_02		.110	.174	.659	.153	-.048	
PI_03		.122	.219	.709	.293	.119	
PI_04		.144	.316	.653	.155	.056	
PI_05		.060	.131	.776	-.024	-.040	
PI_06		.149	.020	.713	.122	.201	
관광개발 지지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STD_01	.616	.410	.267	.106	-.241	
	STD_02	.613	.437	.245	.069	-.308	
	STD_03	.603	.453	.238	.077	-.292	
	STD_04	.693	.213	.096	.098	-.165	
	STD_05	.809	.176	.009	.073	-.065	
	STD_06	.784	.023	.014	.159	-.117	
	STD_07	.829	.110	.087	.099	.079	
	STD_08	.729	.130	.211	.136	.342	
	STD_09	.780	.111	.083	.109	.345	
	STD_10	.787	.085	.114	.166	.281	

총 분산 설명력(%) = 62.719%, KMO(Kaiser-Meyer-Olkin) = .90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X^2$ ) = 5511.019 (df=406, P(<=.000))  
 추출방법: 주성분분석 (7회 반복 회전 수렴)

뒤이어 제시하는 <표 4-4>은 상기 총 29개의 측정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치 분석 결과이다. 323개의 표본으로부터 결측값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리커트 척도 5점(최저 1점~최고 5점)을 이용한 각 항목에 대한 문항별 평균,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표준편차를 볼 수 있다. 전체 문항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문항은 관광개발 지지(STD\_06)에서 4.32를 보였고, 가장 낮은 평균값은 사회적 네트워크(SNW\_04)에서 2.74를 보였다. 또한 표준편차가 가장 낮은 문항은 관광개발 지지(STD\_02)에서 0.778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역시 사회적 네트워크(SNW\_04)에서는 표준편차가 가장 큰 편차값인 1.345로 나타났다.

또한 항목별 평균값은 3.311이 가장 낮은 값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항목이었으며, 평균값이 가장 높은 항목은 종속변수인 관광개발 지지로 4.062로 나타났다.

<표 4-4> 측정항목에 대한 기술 통계값

잠재 변수	변수명	평균	항목별 평균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사회적 신뢰 (Social Trust)	ST_01	3.67	3.477	4	1	5	0.833
	ST_02	3.51		4	1	5	0.902
	ST_03	3.26		3	1	5	0.967
	ST_04	3.33		3	1	5	0.946
	ST_05	3.63		4	1	8	0.931
사회적 규범 (Social Norms)	SN_01	3.52	3.417	4	1	5	0.796
	SN_02	3.40		3	1	5	0.843
	SN_03	3.44		4	1	5	1.025
	SN_04	3.31		3	1	5	0.926
사회적 네트워크 (Social Network)	SNW_01	3.05	3.311	3	1	5	1.145
	SNW_02	3.67		4	1	5	0.960
	SNW_03	3.79		4	1	5	0.979
	SNW_04	2.74		3	1	5	1.345
장소 정체성 (Place Identity)	PI_01	3.86	3.597	4	1	5	0.947
	PI_02	3.04		3	1	5	1.186
	PI_03	3.51		4	1	5	0.984
	PI_04	3.46		3	1	5	0.932
	PI_05	3.94		4	2	5	0.831
	PI_06	3.77		4	1	5	0.896



잠재 변수	변수명	평균	항목별 평균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STD_01	4.00		4	1	5	0.831
	STD_02	4.03		4	1	5	0.778
	STD_03	3.97		4	1	5	0.881
	STD_04	4.11		4	1	5	0.818
관광개발 지지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STD_05	4.25	4.062	4	1	5	0.844
	STD_06	4.32		4	1	5	0.787
	STD_07	4.11		4	1	5	0.825
	STD_08	3.82		4	1	5	0.952
	STD_09	4.05		4	1	5	0.911
	STD_10	3.96		4	1	5	0.920

## 2. 구조방정식 측정모델의 평가 - 신뢰도

다음 단계는 전체 측정모델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PLS-SEM 에서는 각 변수를 잠재 변수로 보고, 설문 문항은 지표로 지칭한다. 집중타당도는 합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와 함께 개념신뢰도와 내적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합성신뢰도는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외부적재값, Outer Loadings) 및 이를 제공한 값들의 신뢰도와 이에 대한 항목별 평균, 그리고 측정변수들의 설명력을 합산한 값을 의미하는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과 함께 변수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 값을 함께 제시한다. 외부적재값은 0.70 이상, 이를 제공한 값인 신뢰도는 0.50 이상, 평균분산추출값은 0.50 이상, 크론바하 알파 값의 일반적 수용기준은 0.60~0.90 이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 모형의 측정 모델의 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 4-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의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은 0.733~0.861이며, 이에 따른 신뢰도 값은 0.537~0.741이고, 평균분산추출값(AVE)은 0.594~0.677 사이의 값을 보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크론바하 알파값은 0.761~0.917 사이의 값을 보여, 측정지표들의 내적일관성을 보여주는 합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는 모두 0.50 이상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구성타당도는 0.854~0.931 사이의 값을 보여, 기준치인 0.60~0.90을 충족하였다.

총 29개의 문항(지표)는 외부적재값 측정 결과에 따라 요구치를 충족하는 경우 모델에 활용하지만, 요구 수치인 0.7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삭제하여 효과 크기를 높이는데, 가령 ST\_05(0.695), SNW\_03(0.688), PI\_05(0.696), PI\_06(0.698)은 종속변수에 대한 전체 변수의 영향력과 경로 효과를 위하여 분석과정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광개발 지지를 측정하는 10개의 문항 중 STD\_04(관광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외부적재치와 신뢰도는 충족하였으나, 본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의 결정 계수(R<sup>2</sup>)값을 낮추는 요인으로 밝혀져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STD\_04를 삭제하면서, STD\_06의 외부적재값이 낮아짐으로써 전체 요인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함께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총 6개의 문항을 삭제한 후 23개의 문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최종 결과에 대하여,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는 모든 항목에서 일반적 수용기준이 충족되었으며, 다음 단계로는 각 항목(잠재변수)에 대한 판별타당도를 분석하였다.

〈표 4-5〉 측정모델의 평가 - 신뢰도

잠재 변수	지표	합성신뢰도			내부 일관성 신뢰도		
		외부 적재값 >0.70	신뢰도 >0.50	AVE >0.50	크론바하 알파 0.60~0.90	rho_A >0.70	구성 타당도 0.60~0.90
사회적 신뢰 (Social Trust)	ST_01	0.836	0.699	0.665	0.832	0.839	0.888
	ST_02	0.784	0.615				
	ST_03	0.793	0.629				
	ST_04	0.848	0.719				
사회적 규범 (Social Norms)	SN_01	0.745	0.555	0.594	0.775	0.798	0.854
	SN_02	0.733	0.537				
	SN_03	0.769	0.591				
	SN_04	0.832	0.692				
사회적 네트워크 (Social Network)	SNW_01	0.843	0.711	0.677	0.761	0.761	0.863
	SNW_02	0.798	0.637				
	SNW_04	0.828	0.686				

잠재 변수	지표	합성신뢰도		내부 일관성 신뢰도			
		외부 적재값 >0.70	신뢰도 >0.50	AVE >0.50	크론바하 알파 0.60~0.90	rho_A >0.70	구성 타당도 0.60~0.90
장소 정체성 (Place Identity)	PI_01	0.791	0.626				
	PI_02	0.758	0.575	0.644	0.816	0.824	0.878
	PI_03	0.861	0.741				
	PI_04	0.797	0.635				
관광개발 지지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STD_01	0.836	0.699				
	STD_02	0.826	0.682				
	STD_03	0.818	0.669				
	STD_05	0.743	0.552	0.627	0.917	0.932	0.931
	STD_07	0.777	0.604				
	STD_08	0.787	0.619				
	STD_09	0.766	0.587				
	STD_10	0.776	0.602				

### 3. 구조방정식 측정모델의 평가 - 판별타당도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각 잠재 변수의 판별타당도는 잠재 변수 간의 뚜렷한 구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2가지 방식의 검증이 가능하다. 즉, 외부적재값을 기준으로 AVE값의 제곱근과 잠재 변수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Fornell-Larcker 기준이 있으며 (Fornell & Larcker, 1981), 잠재 변수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임계값을 0.85 또는 0.90의 보수적인 수치로 설정하여 더욱 민감도를 높인 이종특성-단일특성 상관 비율 (Heterotrait-Monotrait Ratio, HTMT) 검정 방식이 있다. 아래의 <표 4-6>와 <표 4-7>은 이 두 가지 방식의 검정 결과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Fornell-Larcker 기준으로는 각 열의 최상위의 값 이상의 수치가 해당 열 아래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Heterotrait-Monotrait Ratio에서는 0.85 이상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따르고 있다(Hair et al., 2011; Hair et al., 2014). 따라서 본 검정 결과는 본 연구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잠재변수들이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6〉 판별 타당도 Fornell-Larcker Criterion

	ST	SN	SNW	PI	STD
ST	0.816				
SN	0.613	0.771			
SNW	0.823	0.387	0.520		
PI	0.803	0.538	0.510	0.501	
STD	0.550	0.395	0.404	0.442	0.792

〈표 4-7〉 판별 타당도 Heterotrait-Monotrait Ratio (HTMT)

	ST	SN	SNW	PI	STD
ST					
SN	0.770				
SNW	0.487	0.652			
PI	0.603	0.652	0.642		
STD	0.607	0.457	0.480	0.482	

### 제3절 연구가설의 검증

#### 1. 경로분석을 통한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를 위하여 설정한 경로 모형의 가설은 총 4개로 다음의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각 잠재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는 분산팽창지수(VIF) 값이 5 이하임을 확인한 후, 경로효과 값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즉, 경로 효과를 보면, 최종 종속변수인 가설4 (H4)의 효과 값이 가장 큰 0.442로 도출되었다. 경로 효과(경로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보이며, 추정된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요인 간의 관계가 약하다는 의미이다. 각 경로의 경로효과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률분포의 가정을 두지 않은 채 원래의 모집단을 대표하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표준경로 계수인 t-통계값을 통해 확인된다. 즉, 임계치가 1.96인 t-통계값을 기준으로 이보다 큰 값이 도출된 경로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Wong, 2013). 구조 모형에서 경로계수는 서로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한 경로의 계수가 다른 경로계수보다 크면 내생 잠재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해석되며,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적용하는 회귀분석에서 표준화된 베타 계수( $\beta$ )와 같은 값으로 본다(Hensele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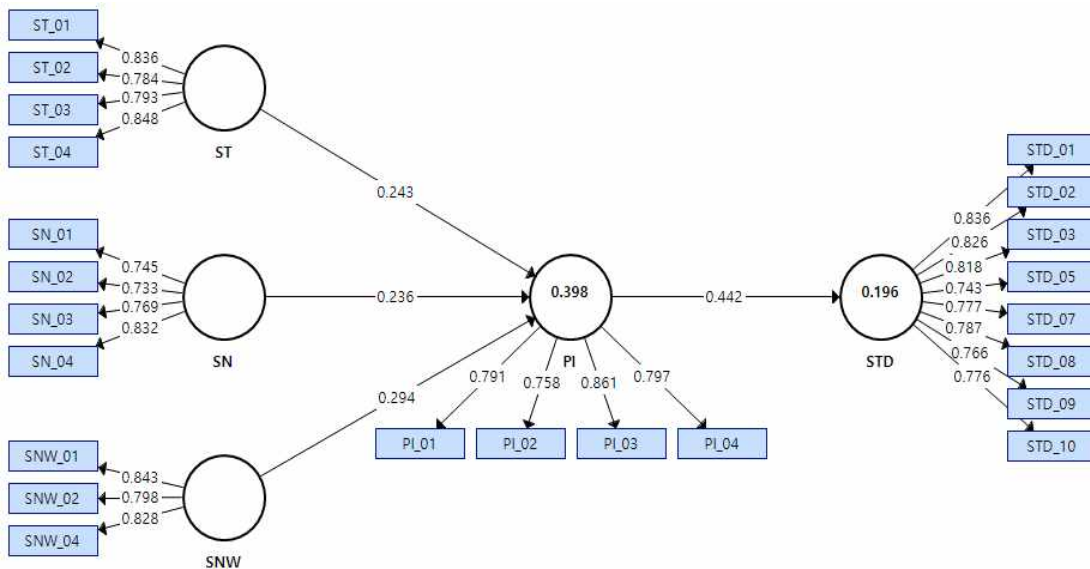
한편 결정 계수( $R^2$ )값은 실제 값과 예측값을 제공한 상관관계이며, 모델의 예측력을 판단하기 위해 모델 추정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므로 표본에 대한 예측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Henseler & Hair, 2014).  $R^2$  값의 범위는 0에서 1까지이며 수준이 높을수록 예측 정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결정계수 값은 모델의 복잡성과 연구 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수용할 수 있는 값에 대한 기준은 가변적이다. 즉, 소비자 행동 연구 분야에서는 0.20 정도의 결정계수( $R^2$ ) 값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간주되는 반면, 고객 만족도 및 충성도의 설명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0.75 이상 훨씬 더 큰 값을 요구하기도 한다(Hair et al., 2017).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로부터 얻어진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결정 계수( $R^2$ )값은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소 정체성(PI)이 0.398이며, 관광개발 지지(STD)가 0.196의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독립변수(사회적 자본)에 대한 장소 정체성의 예측력이 더 높게 나왔지만, 전체 구조 모형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주민들의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예측력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표 4-8〉 구조방정식의 가설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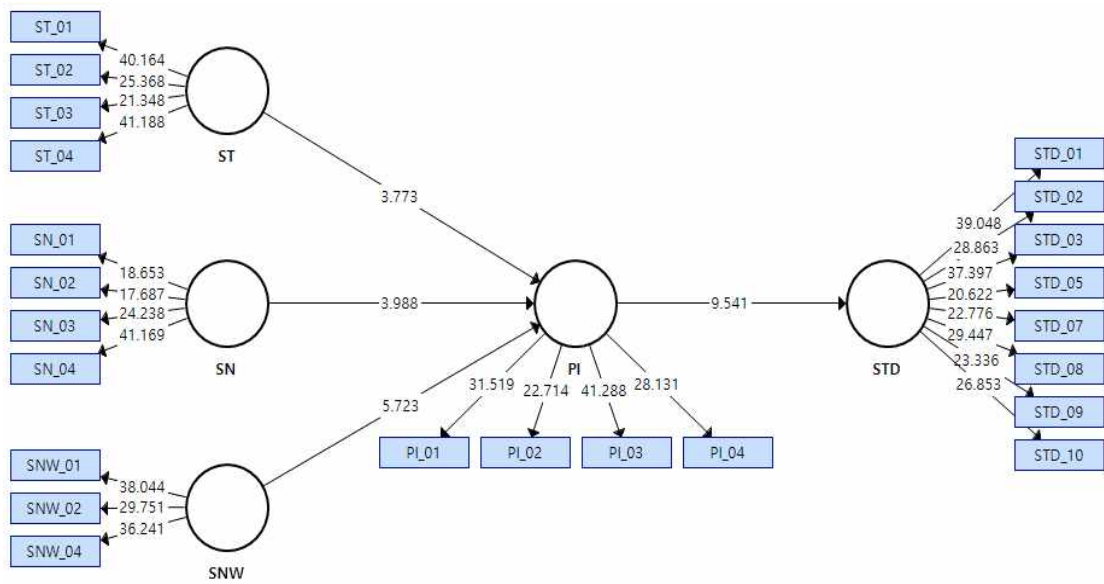
가설	경로 (Path)	VIF	경로 효과 (β)	T Statistics	95% BCa confidence interval	P Values	가설 검증
H1	ST → PI	1.619	0.243	3.773	0.109, 0.362	0.000	채택
H2	SN → PI	1.887	0.236	3.988	0.115, 0.345	0.000	채택
H3	SNW → PI	1.385	0.294	5.723	0.193, 0.395	0.000	채택
H4	PI → STD	1.000	0.442	9.541	0.337, 0.524	0.000	채택

\*p<0.05, \*\*p<0.01, \*\*\*p<0.001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95%의 신뢰 수준에서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에서는 편향이 수정된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Bias Corrected)을 사용하는데,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든 조건에 대해 검증을 해본 결과 4개의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그림 4-1〉 측정변수의 외부적재치와 경로효과 분석 결과



〈그림 4-2〉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위 〈그림 4-1〉은 상기 〈표 4-8〉의 결과를 구조 모형에 적용하여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각 변수에 대한 유의한 측정 문항과 그에 대한 외부적재값, 각 경로에 대한 효과 값과 함께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보여주는 결정계수( $R^2$ )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진 〈그림 4-2〉는 P값의 결과에 따른 각 경로의 유의성, 즉 가설의 채택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PLS-SEM에서는 각 경로에 대한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포괄하는 총간접효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직간접 효과를 모두 합한 총간접효과의 결과는 아래의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이어서 〈그림 4-2〉는 P값의 결과에 따른 각 경로의 유의성, 즉 가설의 채택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표 4-9〉 총간접효과 분석 결과

경로 (Path)	경로 효과 ( $\beta$ )	95% BCa confidence interval		T Statistics	P Values
1 ST → STD	0.107	0.043	0.175	3.189	0.001
2 SN → STD	0.104	0.050	0.157	3.805	0.000
3 SNW → STD	0.130	0.078	0.187	4.653	0.000

\* $p < 0.05$ , \*\* $p < 0.01$ , \*\*\* $p < 0.001$

모든 경로의 유의성이 확인된 만큼, 총간접효과도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SNW)가 관광개발 지지(STD)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신뢰(ST)가 관광개발 지지(STD)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고 사회적 규범(SN)이 관광개발 지지(STD)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경로 간접효과는 경로 모형에서 매개변수를 포함하여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경로에 대한 경로 효과( $\beta$ )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로를 모두 표시하여 나타낸다. 총 4개의 경로에 대한 본 연구모형의 경우 총간접효과는 다음의 <표 4-10>에 제시한 '특정 경로 간접효과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즉, 장소 정체성(PI)은 사회적 신뢰(ST), 사회적 규범(SN),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SNW)의 모든 요인에 대하여, 관광개발 지지(STD)를 매개한다는 가설(H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4-10> 특정 경로 간접효과 분석 결과

가설	경로 (Path)	경로 효과 ( $\beta$ )	T Statistics	P Values	가설검증
H5-1	ST → PI → STD	0.107	3.189	0.001	채택
H5-2	SN → PI → STD	0.104	3.805	0.000	채택
H5-3	SNW → PI → STD	0.130	4.653	0.000	채택

\* $p < 0.05$ , \*\* $p < 0.01$ , \*\*\* $p < 0.001$

## 2. 집단별 연구모형의 검정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 관련 요인에 대하여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다중집단분석(MGA, Multi-Group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는 그룹별로 각 잠재 변수에 대하여 측정변수의 경로계수 간의 차이 검증을 통해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테스트하는 SmartPLS 프로그램이 가진 기능 중 하나인 다중집단분석 방법이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사전에 분류된 집단에 대해 외부적재값과 하중, 경로계수의 모수 추정값 등을 통해 검증하는데,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부트스트래핑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편향이 수정된 신뢰구간 안에서 t-값의 기준으로 유의성을 판단한다(Kock, 2014).



다중집단분석에서 기존의 유사한 접근 방식은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추정치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짝을 이루지 않는 1 sample t-test 검정을 활용하며, 이는 모수를 가정한 정규성을 가진 연속형 데이터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Chin, 2000). 그러나 최소자승법 기반의 경로 모델을 활용할 경우, 모수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 방법을 기반으로 한 PLS-SEM의 알고리즘은 기존의 다중집단분석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분석이 가능하다(Henseler, 2012).

즉, 모수적 접근 방식으로 표본에 대하여 하위 집단을 구분하여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대해 경로모델을 추정할 때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추정치를 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단순히 분포를 가정하는 대신 수집된 표본에 대해 무작위 복원 추출을 통해 다량의 샘플을 생성한 후 신뢰구간을 통한 가설 검정을 거치는 방법으로써 매개분석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다(Ringle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수행하였고 95%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상한 97.5%와 하한 2.5%에 위치한 값을 추출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경로(가설 4개)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물론 세 집단 간의 차이도 함께 검증하였다. 최근 소비자의 행동 의도 관찰을 위한 구조방정식의 경로 효과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실증분석에서 자주 활용되는 최소자승법 기반 다중집단분석은 두 개 이상의 하위 그룹에 대한 분석에서도 적용되고 있다(Lamberti, 2021; Li et al., 2021).

〈표 4-11〉 거주지 구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결과

경로 (Path)	경로효과 (original $\beta$ )		T Statistics		경로효과 차이 ( $\beta$ -diff)	P-값 차이 (A vs B)	New P Values (A vs B)
	제주 원도심 (A)	제주 기타지역 (B)	제주 원도심 (A)	제주 기타지역 (B)			
ST → PI	0.270	0.197	3.076	1.932	0.002	0.053	0.592
SN → PI	0.206	0.313	2.818	3.189	0.005	0.001	0.380
SNW → PI	0.269	0.302	3.542	4.212	0.000	0.000	0.749
PI → STD	0.453	0.449	8.605	6.421	0.000	0.000	0.967

\*p<0.05, \*\*p<0.01, \*\*\*p<0.001

전체 응답자를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인 원도심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생활권자 즉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위에 제시한 <표 4-11>과 같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비교해 본 결과, 그에 따른 각 경로 가운데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출생 지역 분류 기준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를 사업대상지인 원도심에서 태어난 사람, 원도심이 아닌 제주 기타지역에서 출생한 사람, 그리고 제주도 외에서 출생한 이주민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주 원도심 출생자(A 그룹), 제주 기타지역 출생자(B 그룹), 제주도 외 출생자(C 그룹)로 나누어, 각기 두 그룹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A 대 B, A 대 C, B 대 C, 이렇게 세 경우에 대하여 얻어진 새로운 p 값을 기준으로 얻어낸 결과이다.

제주 원도심 출생자(A 그룹)와 제주 기타지역 출생자(B 그룹)의 비교에서는 SN→PI(사회적 규범 → 장소 정체성) 경로에서 두 그룹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 기타지역 출생자(B 그룹)와 제주도 외 출생자(C 그룹)의 비교에서는 SN→PI(사회적 규범 → 장소 정체성) 경로 및 PI→STD(장소 정체성 → 관광개발 지지) 경로에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 원도심에서 출생한 집단( $\beta=0.141$ ,  $t=1.300$ )과 제주 기타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 $\beta=0.410$ ,  $t=4.992$ )은 사회적 규범을 기반으로 장소 정체성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p=0.042$ ), 제주 기타지역 출신의 대상자 그룹들이 그 두 변인의 관계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 통계값으로 비교해 본다면, 원도심 출생자보다는 제주 기타지역 출생자들이 느끼는 영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보다 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사회적 규범이 장소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이다. 제주 기타지역 출생자( $\beta=0.410$ ,  $t=4.999$ )들과 타 시도에서 제주로 이주해온 도외 출생자 그룹( $\beta=0.031$ ,  $t=0.268$ )이다. 즉, 이 두 집단 역시 사회적 규범에 따른 장소 정체성의 인식 변화에 대해 모두 유의한 차이( $p=0.008$ )를 보였는데, 제주 기타지역 출생자들이 타시도 출생자들보다 영향을 더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두 그룹(B와 C)은 장소 정체성이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제주 기타지역 출생자( $\beta=0.371$ ,  $t=5.008$ )들과 타 시도에서 제주로 이주해온 도외 출생자 그룹( $\beta=0.574$ ,  $t=10.115$ )이 받는 영향의 차이( $p=0.028$ )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들 또한 t 통계값의 비교에서 도외 출생자들이 받는 영향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4-12〉 출생 지역 구분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결과

경로 (Path)	경로효과 (original) 차이		T Statistics		경로효과 차이 (β-diff)	P-값 차이 (A vs B)	New P Values (A vs B)
	제주 원도심 (A)	제주 기타지역 (B)	제주 원도심 (A)	제주 기타지역 (B)			
ST → PI	0.214	0.210	1.805	1.982	0.004	0.486	0.972
SN → PI	0.141	0.410	1.300	4.992	-0.270	0.979	0.042*
SNW → PI	0.341	0.216	3.047	2.953	0.124	0.175	0.350
PI → STD	0.514	0.371	6.778	4.988	0.143	0.089	0.178

경로 (Path)	경로효과 (original) 차이		T Statistics		경로효과 차이 (β-diff)	P-값 차이 (A vs B)	New P Values (A vs B)
	제주 원도심 (A)	제주도 외 (C)	제주 원도심 (A)	제주도 외 (C)			
ST → PI	0.214	0.365	1.814	3.495	-0.152	0.832	0.336
SN → PI	0.141	0.031	1.307	0.269	0.110	0.237	0.474
SNW → PI	0.341	0.415	3.060	4.457	-0.074	0.700	0.601
PI → STD	0.514	0.574	6.747	9.996	-0.060	0.735	0.530

경로 (Path)	경로효과 (original) 차이		T Statistics		경로효과 차이 (β-diff)	P-값 차이 (A vs B)	New P Values (A vs B)
	제주 기타지역 (B)	제주도 외 (C)	제주 기타지역 (B)	제주도 외 (C)			
ST → PI	0.210	0.365	1.996	3.406	-0.156	0.849	0.301
SN → PI	0.410	0.031	4.999	0.268	0.379	0.004	0.008**
SNW → PI	0.216	0.415	2.987	4.469	-0.199	0.953	0.094
PI → STD	0.371	0.574	5.008	10.115	-0.203	0.986	0.028*

\*p<0.05, \*\*p<0.01, \*\*\*p<0.001

### 3. PLS-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성 분석

마지막으로 PLS 알고리즘 분석을 통하여,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잠재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측정하는  $f^2$  값과 블라인드 폴딩 분석을 통해 외생잠재변수가 내생잠재변수에 대해 갖는 예측적 적합성을 알 수 있는  $Q^2$  값을 측정할 수 있다. 다음의 <표 4-13>에 보는 바와 같이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예측적 적합성( $Q^2$ )값은 장소 정체성(PI)이 0.248, 관광개발 지지(STD)가 0.112로 도출되었다. 또한 각 가설 경로 별로 외생잠재변수의 영향력( $f^2$ )은 장소 정체성에 대한 관광개발 지지가 0.2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모델의 적합도(SRMR 값)는 0.080으로 기준이 되는 0.08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LS 기반의 구조방정식에서는 CB-SEM과는 달리 모델에 대한 표준 적합성에 대한 통계치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모형의 적합성보다는 구조 모형에 따른 내생 변수의 예측력을 측정하여 연구모델 안에서 가장 효과 값이 큰 변수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Hair et al., 2011), 적합성 평가는 필수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앞서 1항에서 제시한 가설검증에 사용된 경로 효과 값은 결정계수( $R^2$ )로써 평가하고,  $Q^2$ 은 내생변수에 대하여 외생변수가 가지는 예측 적합성으로, 내생잠재변수의 중복성을 교차검증한 수치인데 이는 외생변수의 집합 내에 있는 모든 변수와 내생잠재변수 집합 안에 있는 모든 변수를 교차하여 얻어낸 다중상관계수의 제곱값이다. 본 연구모형에 대하여 산출된  $Q^2$  값은 장소 정체성(PI)이 0.248 이고, 관광개발 지지(STD)는 0.112로써 0.15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 두 변수의 예측 적합성 평가에서 장소 정체성이 기준보다 높은 적합성을 보였다.

각 경로에 대한 효과크기를 보여주는  $f^2$ 값의 경우, 기준값은 0.15로써(Hair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장소 정체성(PI)이 관광개발 지지(STD)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0.243으로 표준치 보다 큰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RMR 값은 PLS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낸다 (Nitzl et al., 2016).

〈표 4-13〉 연구모형의 적합성 분석 결과

잠재변수 (Latent Variables)	Q <sup>2</sup> (예측 적합성)	SRMR
장소 정체성 (PI)	0.248	0.080
관광개발 지지 (STD)	0.112	
외생잠재변수 (Outer Latent Variables)	가설	f <sup>2</sup> (효과 크기)
사회적 신뢰 → 장소 정체성 (ST → PI)	H1	0.061
사회적 규범 → 장소 정체성 (SN → PI)	H2	0.049
사회적 네트워크 → 장소 정체성 (SNW → PI)	H3	0.104
장소 정체성 → 관광개발 지지 (PI → STD)	H4	0.243

주 : SRMR<0.08, Q<sup>2</sup>>0, f<sup>2</sup>>0

#### 제4절 분석 결과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소 정체성이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받아 관광개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기본적인 경로 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효과를 네 개의 가설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각 변수 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이 되는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규범,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는 모두 장소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개발 지지가 장소 정체성으로부터 받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 효과의 크기로 볼 때 가장 효과가 큰 경로는 장소 정체성(PI)이 관광개발 지지(STD)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서 장소 정체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으로써 PLS-SEM의 특정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는 장소 정체성(PI)의 매개효과가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두었던 설문조사 참여자의 지역적 요인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거주지역 및 출생 지역을 분류 기준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집단의 특정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으로 선정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주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규범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은 장소 정체성의 형성 또는 향상에 영향을 주며 관광개발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장소 정체성은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받아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경로 효과에서 매개변수으로써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가설검증 과정에서 장소 정체성과 관광개발 지지 사이의 경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써, 두 변수는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PLS-SEM의 분석 기능의 특성 중 하나인 외생변수의 예측 적합성( $Q^2$ ) 결과에서 장소 정체성(PI)은 관광개발 지지(STD)보다 더 높은 예측값을 도출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을 2~3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연구모형의 경로에 대해 집단 간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집단별로 차이가 전혀 없는 집단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 간의 특정 경로가 밝혀졌다. 모든 가설 경로가 유의한 가운데, 집단을 구분하여 경로 효과( $\beta$ 값)의 차이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해본 결과, 출생 지역에 따른 집단에서 부분적으로 경로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응답자들을 원도심과 제주 기타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구분하였을 때, 두 집단은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각각의 경로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생활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응답자들에게는 그들이 제주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본 연구모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조적인 관계와는 전혀 영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출생 지역을 기준으로 형성된 집단 간에는 사회적 규범(SN)이 장소 정체성(P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즉, 제주 원도심에서 출생한 그룹과 제주 기타지역 출생자들, 그리고 제주 기타지역 출생자들과 제주도 외 출생자들은 각각 사회적 신뢰가 장소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르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해당 경로에 대하여 제주 기타지역 출생자 집단은, 제주 원도심 출생자 집단은 물론 제주도 외에서 출생한 집단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비교에서 제주 기타지역 출생자 그룹과 제주도 외 지역에서 출생한 그룹이 장소 정체성(PI)으로 인해 관광개발 지지(STD)에 받는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 경우 제주도 외 출생자 그룹들이 받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가설 중 집단 간의 차이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영향 관계는 사회적 신뢰(ST) 및 사회적 네트워크(SNW)가 장소 정체성(PI)에 미치는 경로 구간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로는 사회적 신뢰가 장소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beta=0.243$ ,  $p=0.000$ )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장소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beta=0.294$ ,  $p=0.000$ )은 모두 사회적 규범이 장소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beta=0.236$ ,  $p=0.000$ )보다 경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의 세 요소 가운데 사회적 규범이 장소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두 요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장소 정체성을 높이는 것이 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들이 장소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요소가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본 연구모형의 이론적 토대인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배경으로 한 관광개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요인들의 구조적인 영향 관계 검증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장소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장소 정체성이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도시라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이를 지역주민 관점에서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해당 모델을 적용하여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을 '인지'라는 과정을 통해 장소 정체성이라는 '감정'을 매개로 하여 관광개발 지지라는 '행동의도'에 이르는 과정을 검증하고, 거주지역과 출생 지역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각 집단 간의 경로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4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역으로 출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생활권을 이루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확률표본추출법 중 판단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에 걸쳐 지역 내 주민협의체, 상인회 등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총 323건의 표본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행동' 요인을 관광개발 지지로 가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 프로그램에 적합한 Smart PLS(v. 3.3.9)를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 분석과 빈도분석을 위하여는 SPSS 25.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장소 정체성의 영향을 받아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전반적으로 개념 신뢰도와 측정 도구의 일관성, 그리고 구성타당도를 충족하며 판별타당성을 갖춘 모형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을 분석한 결과 모든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사회적 신뢰, 사회적 규범 및 사회적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지(cognition)'의 향상은 지역사회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인간관계와의 상호작용인 '감정(affect)'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라는 '행동(behavior)'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요인 간 상호관계에 대한 기능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장소 정체성의 유의미한 예측 변수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장하였으며, 장소 정체성이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지를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라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과 장소 정체성과의 영향 관계 검증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인 사회적 신뢰, 사회적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 등 모든 요인이 장소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ryden & Hart(2004)와 Cuba & Hummon(1993)의 사회적 자본과 장소 정체성 간에는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자본은 커뮤니티 기반의 축제를 통한 관광개발을 도모하는 연구(Kuo et al., 2021)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장소 정체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회적 자본 요소는 동료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쌓인 신뢰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Ali-Hassan et al., 2015).

둘째, 장소 정체성과 관광개발 지지의 영향 관계에서는 장소 정체성이 관광개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의 장소 정체성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어왔다. 중국, 포르투갈,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문화·역사 관광지, 다크 투어리즘, 섬 관광지와 같은 다양한 관광 형태에 관한 선행연구(Eusebio et al., 2018; Gu & Ryan, 2007; Wang & Chen, 2015; Wang et al., 2017; Yuan et al., 2019)를 통해 밝혀진 것과 같은 결과이다. 정서적 요소로서 장소 정체성은 인지적인 요소와 행동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며(Bagozzi, 1992; Wang et al., 2020), 유럽의 농촌 마을에서는 장소 정체성의 역할에 대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적으로 계층화된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지역마다 서로 경쟁하면서 관광개발을 촉진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Kneafsey, 2000).

셋째,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을 적용하여 거주지역과 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한 결과 출생 지역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Um & Crompton (1987)은 지역에 대한 애착은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관

광 영향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출생지와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그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출생지가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 거주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이라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Bernardo & Palma-Oliveira, 2012).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 1. 이론적 시사점

관광개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는 연구자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관광개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유사성과 차이점이 함께 존재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의 사례대상 지역인 제주시 원도심 지역은 옛 제주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지역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쇠퇴와 침체로 인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정주 환경개선을 비롯하여 관광을 주요 전략으로 한 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었다. 도시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유동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회복 및 지역 정체성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부처와 지자체 협업을 통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을 적용하여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장소 정체성, 관광개발 지지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인지-감정-행동 간의 관계 규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인지하는 장소(지역)와 지역사회 사회구성원(커뮤니티)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의 모색이 중요하다(한승훈·김진옥, 2018; Anton & Lawrence, 2014). 이는 도시재생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을(김나영·김진강·김수진, 2020; 박인영·배기철, 2019)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참여와 관광개발 지지와의 관계(이나영·안재섭, 2017)를 밝히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사업추진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신뢰하며 지역사회 가치를 창출(장영수·김이태, 2021; 정승훈, 2019; Ujang & Zakariya, 2015)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장소 정체성 및 관광개발 지지와 영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구도심

재생사업을 관광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관광개발 지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신뢰와 유대감을 높이는 자원이며(김종기·김진성·뢰정첩, 2012; Wolf et al., 2015; Zhang et al., 2020),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관광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사업의 내용과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전달되어 관광개발사업을 지역사회의 사업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동완, 2009; 고진숙·서영수, 2016; 김기철, 2013; 박용순·제상호, 2015; 오상운·조문수, 2015)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과 일치한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신뢰, 사회적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이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한 중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장소 정체성이라는 변수가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과 관광개발 지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소 정체성이 관광개발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한 장소 정체성이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그러함을 알 수 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성패는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강신겸, 2001; 고동완·김현정, 2003; 박경옥·신문기·류지호, 2015; 윤지현·이환봉, 2008; Eusébio et al., 2018; Gross & Brown, 2008; Gu & Ryan, 2007; McCool & Martin, 1994)는 기존의 연구는 물론 구체적인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관이 높다(김나영·김진강·김수진, 2020; 오후·장인수·황희연, 2016; Lewicka, 2008). 이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장소와 사람 간의 유대를 통해 형성되는 장소 정체성이 밑바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장소에 대한 감정은 곧 지역에 대한 소속감(Bernardo & Palma-Oliveira, 2012)을 바탕으로 한 지역에 대한 애착(Proshansky et al., 1983)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적용 가능성과 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이 관광개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표본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출생지가 다른 집단들 사이에 사회적 자본과 장소 정체성, 그리고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즉, 제주 원주민들의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기 구축된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낯선 이웃들과 새로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타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뢰 관계 구축이 장소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집단별 차이에서 특이한 점은 '제주 기타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 사회적 규범이 장소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주도 내 원도심 지역이나, 제주도 외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현재 제주도의 인구 구성 비율로 보았을 때, 비원도심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여 거주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인식하기에 지역사회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미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넓고 깊다고 보여진다. 또한 제주도 외 출생자 97명 중 절반 이상인 48명은 제주도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관광개발의 영향(Um & Crompton, 1987)은 물론 지역사회 정서와 관련한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거주기간이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McCool & Martin, 1994)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지역인 원도심을 중심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가설의 모델 경로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거주자와 생활권자가 가지는 공동체 의식이 다르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이유리·이명훈, 2018)와는 상반되는 것으로써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상자들에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성공적인 관광사업에 대한 기대와 염원은 거주지가 원도심인가 아닌가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개발과 같은 사업도 지역주민들의 태도가 다른 경우 주민들 간의 갈등 요소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양승필·서용건, 2015).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마음이 일치되어야 한다(김희진, 2020)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는 개인의 관점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박진희·김미경·이희찬, 2004)이며, 후속 연구를 위한 더욱 면밀한 연구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도시재생사업 프로젝트에 대하여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각할만한 확실한 목표 달성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실무적 시사점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을 전제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종료 이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수

립에서부터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 수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 계획수립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참여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지역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을 통한 지지와 참여, 그리고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사업추진 연차별로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역량 강화교육 및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거주지역과 출생 지역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서, 특히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중집단분석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제주시 원도심 거주자와 생활권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사업 효과의 지속성 확보와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수준 제고 및 관광개발지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준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서 C-A-B(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이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집단인 지역주민들의 참여 증진을 위해 우선은 지역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도심은 옛 제주시의 중심지 구실을 했던 곳으로, 일반적인 주거환경과 배후지의 기능 이외에도 중심시가지로서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기반하여 융복합형의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주민참여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원도심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어 각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업대상 지역을 보다 세분화하고 지역 내 자생 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주민을 지역관리 주체로서 운영 활성화 및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대상 지역의 사업성과 및 효과측정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시 원도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종료에 따라 2022년 6월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의 사

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간 연계성 강화와 협업을 통한 관광개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C-A-B (Cognition-Affect-Behavior) 모델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장소 정체성이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받아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사업 대상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은 장소 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장소 정체성은 관광개발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업대상 지역 거주자와 비거주자, 출생 지역 등을 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장소 정체성, 관광개발 지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장소 정체성을 매개로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분석하고 도시재생을 포함한 관광개발 지지와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조사대상 표본 선정에 따른 한계점이다. 모집단의 구성 비율을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이나 제주도 기타지역 거주자 중 연구지역인 제주 원도심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모집단을 특정하는 자체가 민감한 사항으로 조사과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지로 연구된 제주시 원도심 지역은 관광을 주요 전략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이전부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및 관광사업 지원정책이 추진되었던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의 효과 및 지역주민의 인식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사업대상 지역이 4개 동에 걸쳐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고 광범위한 데 비해 실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역주민 대상 표본 수가 적고, 비확률표본추출을 통해 사업대상 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정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의 분포를 보면 제주시 원도심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보다 제주시 원도심 기타지역, 육지에서 이주한 이주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에 다양한 요인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종단적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주민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기는 하나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는 행정기관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변수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방위적인 수준에서 추가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이해관계집단의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관광개발 성공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덕제·김정현(2020).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한 축제의 사회적 자본 형성요인 분석. 『동북아관광연구』 16(4): 1-21.
- 강신겸(2001). 지역사회 애착도가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영애·유광민·김남조(2012). 지역주민의 장소애착과 환경인식이 생태관광 영향인식과 지지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4(4): 113-136.
- 고계성(2014).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6(9): 379-396.
- 고동완(2001). 인구통계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 인식의 차이. 『관광학연구』 25(3): 63-80.
- 고동완(2009).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개발 모형. 『관광학연구』 33(5): 411-431.
- 유인혜·고동완(2009). 지역사회 기반형 관광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환경인식, 참여와 통합의 관계. 『관광학연구』 33(1): 157-179.
- 고동완·김현정(2003).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관광학연구』 27(3): 97-114.
- 고동완·정승호(2004).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태도 차이. 『국토계획』 39(2): 177-188.
- 고진숙·서영수(2016).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의도 관계 분석: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8(9): 7-25.
- 권경희(2018). 도시재생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역할과 활용에 관한 비판적 논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3): 432-446.
- 권장욱·김장원·이재은(2017). 지역이벤트 참가자의 전문화 수준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장소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9(5): 255-274.
- 김경아·문태훈(2017). 지역별 문화자산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45-257.
- 김경주·강기용·김경민(2010).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도로사업의 간접편익 추정. 『대한토목학회논문지』 30(1): 1.
- 김경화·백종인·손철희·반영운(2015).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 도출. 『도시행정학보』 28(2): 267-285.
- 김권수(2014).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마을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공공사회연구』 4(1): 66-92.

- 김기철(2013). 관광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자본에 따른 관광개발정책수용태도와 관광성과인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나영·김진강·김수진(2020). 관광형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지역애착도가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광 센트리피케이션 인식의 매개효과. *Tourism Research*, 45(3): 51-75.
- 김동근(201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분석. 『국토계획』 46(3): 5-17.
- 김민석·이우형(2013). 원도심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중심의 창조도시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3(2): 243-244.
- 김민지·남재철·이승우(2017). 지역 애착심과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농촌관광연구-제주도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41(3): 51-67.
- 김보경·조광익(2016). 컨벤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 지역사회 애착도와 공동체의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0(12): 5-22.
- 김보미·손용훈·이동근·이현진(2019). 도시재생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이화동 벽화마을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7(3): 1-11.
- 김성민(2015). 지역사회 애착도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 김성혁·김상희(1997). 한국인의 가치를 이용한 여행사 선택행동 특징. 『호텔경영학연구』 6(1): 253-269.
- 김세일·임화순. (2020). 관광개발 관련 연구동향에 관한 내용분석: KCI 등재지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2(1): 27-51.
- 김승근(2009).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가꾸기 사업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연구-충주 목계 문화 역사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1(4): 35-42.
- 김영·정규식·천성봉(2013). 도심재생사업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2): 43-69.
- 김영환(2008). 수변공간 문화재생의 계획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해외사례 고찰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4(8): 207-216.
- 김용욱(2012). 국립공원 탐방객의 자연보호의식과 생태관광태도에 관한 연구: 북한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5(6): 77-97.
- 김인서·나주몽(2018).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문화정체성 지표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3): 451-466.
- 김정현·고동완(2016).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관광분야의 사회자본 연구동향-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0(8): 157-173.

- 김종구(2009).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 토목학회논문집 D』 29(2D), 275-286.
- 김종기·김진성·뢰정첩(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정보시스템 연구』 21(3): 163-186.
- 김지인·민재호(2021). 문화적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관광 성공요인 개발 연구. 『인문사회 21』 12(4): 2873-2886.
- 김학실(2013). 도시재생과정에서 마을기업의 역할. 『한국정책연구』 13(2): 41-60.
- 김향자(2013). 관광지 재생 정책의 추진방향. 『한국관광정책』 (52): 71-79.
- 김향자·유지운(2000). 관광도시 육성방안.
- 김혜영(2015). 농촌관광개발사업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참여와 심리적 주인의식이 마을조직 몰입과 개발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경영연구』 67: 105-123.
- 김호철(2017). AHP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요인 분석 연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 김화령·김호철(2022). 도시재생기업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 암사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5(3): 1-17.
- 김홍렬·장윤정(2013). 도시관광의 관광매력성과 도시이미지 관계 연구: 서울 외래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27(3): 173-188.
- 김홍식·한성미·박혜연(2015). 지역구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관광 정책방안 연구. 『정책연구』 1-130.
- 김희진(202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도심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 연구. 『관광레저연구』 32(10): 45-59.
- 김희진(2021). 지속가능 관광을 위한 구도심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Kano 모델 적용. 『관광레저연구』 33(6): 25-39.
- 노현준·진용석(2019). 도시재생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 경향 및 특성분석.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4(7): 63-72.
- 류용걸(2014). 메가이벤트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18(1): 41-60.
- 류인평·김영주(2011). 관광 위험지각과 관광객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6(1): 149-168.
- 박경옥·신문기·류지호(2015).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연구: 개인혜택, 관광객 수용, 지역사회만족 인식의 조절효과. 『관광레저연구』 27(1): 43-62.

- 박수연·김영주(2016). 아파트 거주자의 장소애착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15(4): 59-72.
- 박용순·제상호(2015). 농촌관광개발에서 사회적 자본과 주민지각과의 관계-집단적 측면에서 삶의 질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21(3): 85-99.
- 박인영·배기철(2019). 관광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이 전주 지역주민의 주거만족도 및 지역사회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91: 803-825.
- 박진아·김병석(2014). 근린환경만족도 및 지역사회 애착도가 마을만들기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남 1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5(2): 215-226.
- 박진희·김미경·이희찬(2004).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과 개인적 특성변수가 관광개발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19(2): 73-93.
- 박희정(2019). 도시재생 관련 신문기사에 나타난 관광에 대한 관심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5): 191-199.
- 서순탁(2002).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과 과제: 접근방법과 정책적 함의. 『국토연구』 통권, (33): 73-87.
- 서익진(2016). 문화적 도시재생 유형의 사례 분석: 창원시 마산 원도심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14(4): 363-382.
- 성순아·오후·황희연(2015).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활동이 지속적 참여 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주시 사직 2 동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0(4): 393-406.
- 송기현(2010). 생태관광축제 영향요인의 지역주민 태도와 관광개발지지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미령·성주인(2005). 마을개발사업의 성과와 주민참여의 관계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4): 293-319.
- 송상섭(2010). 지역사회 애착, 관광영향인식과 내발적 지역관광개발 참여의사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대학원.
- 송상섭·한범수(2012). 지역사회 애착이 내발적 지역관광개발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제주도 주민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36(1): 241-261.
- 신동주·강유진(2016). 지역주민의 애착도가 관광개발영향인식, 혜택, 지지에 미치는 영향: 폐특법 대상지인 강원도 남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연구』 31(1): 113-129.
- 신주하·이승곤(2021). 도시재생지역 방문객의 경험적 가치가 장소애착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포 문화비축기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5(7): 5-19.
- 신현주·강명구(2017).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 용산구 해방촌 사례를 중

- 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3): 25-46.
- 양건·이상호·백승현(2015). 제주시 원도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총괄계획가 운영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3): 37-44.
- 양덕순·강영순(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 양덕희(2007).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자원지속성 지각이 만족과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민호·고진영·김명일·김기성(2018). 주민참여가 공동체의식과 관광개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철원군 DMZ 평화마을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국농공학회논문집』 60(2): 65-73.
- 양승필·서용건(2015). 관광개발에 대한 갈등요인, 갈등수준, 주민협력 및 개발 지지간 영향 연구: 제주지역 카지노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30(2): 309-329.
- 여영숙(2009).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으로서 생태관광의 전망: 순천만 갈대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3(4): 383-401.
- 오덕성(1998). 대전시 구도심 기능강화와 복합화의 도입. 『공공문제와 정책 (구 지역개발논총)』 10: 7-29.
- 오동훈·권구황(2007). 도시재생전략으로서의 도시문화마케팅 해외사례 연구. 『국토계획』 42(5): 109-128.
- 오상운·조문수(2015).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삶의 질, 관광태도 간의 관계 연구. 『관광레저연구』 27(12): 235-249.
- 오정학·윤유식(2009). 지역애착심과 관광개발선호, 평가, 만족, 인구학적 특성과 관광개발 지지, 효과 인식의 영향관계: 지역애착심과 관광개발선호. 『관광연구』 24(5): 275-295.
- 오후·장인수·황희연(2016). 도시재생사업 인지도가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 청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643-654.
- 유광민·김기완·김남조(2007). 관광개발에서 주민태도연구의 비판적 고찰: 사회교환이론과 사회표상이론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19(2): 111-132.
- 유광민·장병권(2012). 관광지 재생 연구방향 모색을 위한 관광지 재생 의미와 전략 선행연구 분석. 『관광학연구』 36(5): 69-91.
- 윤설민(2015). 문화유산관광지의 고유성 및 보존의 지지에 대한 관광객 반응: 서산 해미읍성을 대상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4(6): 61-77.
- 윤성훈·박천보(2012). 도시재개발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2): 233-234.

- 윤지현·이환봉(2008). 지역사회 애착도와 지역민의 관광개발 태도 연구. 『관광경영연구』 12(2): 76-102.
- 이나영·안재섭(2017).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3): 63-78.
- 이상용·윤희정(2013). 지역주민 특성별 수변공간 관광개발 태도 차이: 가평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8(3): 249-262.
- 이수진(2019). 관광과 지역사회 갈등사례 연구. 『정책연구』 1-75.
- 이승중·김혜정(2011). 『시민참여론』 박영사.
- 이승준·박영근(2021). 시간적 초점이 도시재생관광지의 자아일치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44(2): 75-102.
- 이승훈(2019).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브랜드일치와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도시이미지, 도시재생 관여도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87: 247-268.
- 이시은·심창섭(2019). 관광개발에서의 주민참여기법으로서 퍼실리테이션: 농촌관광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34(5): 157-176.
- 이양림·김영미(2018). 관광개발지지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30(7): 357-380.
- 이유리·이명훈(2018).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주민유형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주민참여 활동과의 관계 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 51-65.
- 이윤주·박창환·이훈(2020). 여행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연구동향 분석 및 개념적 재구성-SSCI 학술지 논문의 내용분석. 『관광학연구』 44(8): 55-78.
- 이은수(2019). 도시관광자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 분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전략 탐색: 광주 구도심 재생을 중심으로. 『이벤트컨벤션연구』 33: 137-155.
- 이은진·정진원·변병설(2016).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계획지표 연구-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을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50(3): 349-360.
- 이일희·이주형(2011).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2(6): 101-114.
- 이재곤·위주연(2019). 도시재생관광지의 스토리텔링에 따른 지역 브랜드가치, 브랜드이미지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경영연구』 90: 675-696.
- 이지혜·이명훈·전병혜(2009).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도에 관한 영향구조 분석: 광주광역시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4(1): 73-85.

- 이진희·김구(2007). 시티투어를 활용한 제주도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30: 179-216.
- 이진희·임상연·정윤희(2020). 정책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 『국토정책』 Brief, 1-6.
- 이혜린·이훈(2014). 지역기반형 메가이벤트 자원봉사 경험만족과 장소애착 및 관광행동의 관계 분석. 『관광레저연구』 26(9): 253-272.
- 이후석(2011). 지역주민의 지역애착 수준별 농촌 관광영향인식과 관광개발태도 관계 분석. 『관광연구저널』 25(5): 29-45.
- 임경환(2020). 도시관광 재생사업이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24(6): 571-591.
- 임기성(2013).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울산 일산유원지를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9(1): 43-63.
- 임화순·고계성(2012).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이 태도 및 지지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관광연구』, 8(1), 123-139.
- 장영수·김이태(2021). 도시재생지역 주민의 지속가능관광 인식이 관광개발지지와 가치공동창출에 미치는 영향-부산 도시재생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집』 90: 370-373.
- 장혜원·박지은(2021). 지속가능한 관광태도 척도의 타당도 검증에 관한 연구: 제주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3(4): 119-138.
- 장호찬. (2010). 관광지의 자원봉사활동경험이 장소애착 형성과 관광객으로서의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4(3): 29-57.
- 전경숙(2011). 광주광역시의 도시재생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3): 1-17.
- 정강환(1995). 한국의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외국사례분석 및 이벤트관광전략에 관한연구, 사회과학연구, 12,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봉섭·여정태·김재호(2011). 관광개발 추진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와 통합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5(1): 125-144.
- 정승훈(2019). 도시재생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부신뢰, 영향 인식, 지지의 관계 분석. 『관광경영연구』 89: 223-245.
- 정영환·유진형(2012). 국내외 도시재생 전략의 분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7(4): 167-176.



- 정유리·정성문·강신겸(2017). 도시관광지 주민의 지역에착도가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광주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1(7): 21-38.
- 정유준·이주형(2013). 지역관광브랜드 개발유형에 따른 편익이 개발지지에 미치는 영향: 강릉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27(4): 171-191.
- 정재원·한주형(2021).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관광지 속성에 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1(1): 15-27.
- 정철모·이용재(2013). 노후상가 재생을 위한 공공지원형 임대복합상가 개발모형 연구: 전주 도시재생 TB 상가지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3): 37-66.
- 조광익·김남조(2002). 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미치는 구조 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1): 31-51.
- 조진호·최열(2018). 장소애착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 및 Gentrification에 대한 주민 의식 분석: 도시재생 사업지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16(1): 65-82.
- 조필규(2010).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개선 방안 연구: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4): 63-86.
- 조원섭·최상수(2011). 천안시민의 지역사회 애착도가 지역축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3): 449-459.
- 조환기(2020). 관광목적지의 매력성: 도시재생지역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9(8): 227-239.
- 진은애·이우종(2018).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가 사회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 아미초장 도시재생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9(5): 77-88.
- 최길수·정영운(2014). 지역단위의 사회적자본 측정에 관한 연구: 대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25(1): 1-22.
- 최상규·정강환·임명재(2017). 도시재생측면에서 관광축제의 영향인식에 관한 연구. *Tourism Research*, 42(1): 125-145.
- 최승담·강신겸(2001). 지역사회 애착도의 구성요인에 관한 개념적 고찰: 관광개발에 대한 시사점. 『사회과학논총』 20: 203-222.
- 최열·임하경(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0(2): 53-64.
- 최영국(2000).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 및 과제. 『국토』 6-19.
- 최영석(2020). 관광을 수단으로 한 도시재생 관련 연구동향 분석: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6(6): 52-59.
- 최영출(2004). 지역의 사회자본측정지표 설정. 『지방정부연구』 8(3): 119-144.

- 최영희·이원철·이훈(2005). 동굴관광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및 영향요인: 지역애착과 태도이론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4(1): 193-215.
- 최재우(2018). 문화관광 상품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례 연구: 1913 송정역시장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3(3): 209-228.
- 하성규(2021). 주거취약지역의 공공개발과 국가의 역할. 『국토』 2-4.
- 하정봉·길종백(2013).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3): 249-274.
- 한승훈·김진옥(2018). 지역주민의 지역애착, 공동체 의식, 태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어등산 관광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2(12): 5-18.
- 한승훈·신동주(2017). 지역애착, 개발만족 그리고 개발 지지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강원도 남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1(5): 23-35.
- 허성란·노경희(2012). 지역사회자본, 축제파트너십과 축제거버넌스 관계 연구-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16(1): 197-221.
- 허향진·현용호·허성철(2005). 주민참여의식에 따른 지역경제여건, 지각된 편익·비용, 관광개발유형간의 구조모델분석. 『관광학연구』 30(3): 229-250.
- 황보민경·이정교(2008). 구도심 재생을 위한 공공영역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3(3): 81-93.
- 황종아·강지연(2021). 범죄발생 위험지역의 공간분포와 도시쇠퇴 특성과의 관계-GIS 기반 공간통계 기법을 통한 범죄발생 위험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1(6): 87-94.
- Adger, W. N.(2003). Social aspects of adaptive capacity. In *Climate change, adaptive capacity and development*. 29-49.
- Adler, P. S., & Kwon, S. W.(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17-40.
- Ali, F., Kim, W. G., Li, J. J., & Cobanoglu, C.(2018). A comparative study of covariance and partial least squares 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in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30(1): 416-435.
- Ali-Hassan, H., Nevo, D., & Wade, M.(2015). Linking dimensions of social media use to job performance: The role of social capital. *The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24(2): 65-89.

- Allen, T. F. H., & Hoekstra, T. W.(1993). Toward a definition of sustainability. Sustainable ecological systems: implementing an ecological approach to land management. *Rocky Mountain Forest and Range Experiment Station, Fort Collins, Colorado*. 98-107.
- Anton, C. E., & Lawrence, C.(2014). Home is where the heart is: The effect of place of residence on place attachment and community particip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40: 451-461.
- Ap, J.(1992). Residents' perceptions on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4): 665-690.
- Ap, J., & Crompton, J. L.(1993). Residents'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tourism impac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1): 47-50.
- Ashworth, G., & Page, S. J.(2011). Urban tourism research: Recent progress and current paradoxes. *Tourism management*. 32(1): 1-15.
- Attanasi, G., Casoria, F., Centorrino, S., & Urso, G.(2013). Cultural investment, local development and instantaneous social capital: A case study of a gathering festival in the South of Italy.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47: 228-247.
- Azjen, I., &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gozzi, R. P.(1992). The self-regulation of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r.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78-204.
- Ballesteros, E. R., & Ramírez, M. H.(2007). Identity and community-Reflections on the development of mining heritage tourism in Southern Spain. *Tourism management*. 28(3): 677-687.
- Balsas, C. J. L.(2000). City center revitalization in Portugal: Lessons from two medium size cities. *Cities*. 17(1): 19-31.
- Baumeister, R. F., & Leary, M. R.(2017).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Interpersonal development*. 57-89.
- Bernardo, F., & Palma-Oliveira, J. M.(2012). Place identity: A central concept in understanding intergroup relationships in the urban context. *The role of place identity in the perception, understanding, and design of built environments*. 35-46.

- Besser, T. L.(2009). Changes in small town social capital and civic engagement. *Journal of rural studies*. 25(2): 185-193.
- Boley, B. B., McGehee, N. G., Perdue, R. R., & Long, P.(2014). Empowerment and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Strengthen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through a Weberian le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49: 33-50.
- Boulding, W., Kalra, A., Staelin, R., & Zeithaml, V. A.(1993). A dynamic process model of service quality: from expectations to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0(1): 7-27.
- Bourdieu, P.(2018). The forms of capital. In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pp. 78-92). Routledge.
- Bourdieu, Pierre.(1986). *Forms of Capital*. Pp. 241-60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Greenwood Press.
- Brown, L. D., & Ashman, D.(1996).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nd intersectoral problem solving: African and Asian cases. *World development*. 24(9): 1467-1479.
- Bryden, J. M., & Hart, K.(Eds.). (2004). *A new approach to rural development in Europe: Germany, Greece, Scotland, and Sweden*. Lewiston, NY: E. Mellen Press.
- Bullen, P., & Onyx, J.(2005).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in NSW: a practitioners guide*. Coogee NSW. Management Alternatives.
- Burt, R. S.(2000). The network structure of social capital.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2: 345-423.
- Canter, D.(1997). *The facets of place*. In *Toward the integration of theory, methods, research, and utilization* (pp. 109-147). Springer, Boston, MA.
- Chin, W.(2000). Partial least squares for IS researchers: an overview and presentation of recent advances using the PLS approach. In *Proceedings of the twenty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pp. 741-742).
- Choi, H. S. C., & Sirakaya, E.(2005). Measuring residents' attitude toward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of sustainable tourism attitude sca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4): 380-394.
- Chun, H., & Kim, S.(2009). A study of the difference of social capital among the group of residents in new town area.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63: 29-42.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x, E. M., & Weir, D.(1995). *A truly civil society* (pp. 1-11). Sydney: ABC Books.
- Cresswell, T.(2004). *Defining place. Place: A Short Introduction*. Malden, MA: Blackwell Ltd. 12.
- Cuba, L., & Hummon, D. M.(1993). A place to call home: Identification with dwelling, community, and region. *Sociological quarterly*. 34(1): 111-131.
- Derrett, R.(2003). Making sense of how festivals demonstrate a community's sense of place. *Event Management*. 8(1): 49-58.
- Devine Wright, P.(2009). Rethinking NIMBYism: The role of place attachment and place identity in explaining place protective action.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9(6): 426-441.
- Dixon, J., & Durrheim, K.(2000). Displacing place identity: a discursive approach to locating self and othe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1): 27-44.
- Domsic, L.(2015).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young local residents about social impacts of Spancirfest festival in Varazdin. *Informatologia*. 48(3/4): 185.
- Doxey, G. V.(1975, September). A causation theory of visitor-resident irritants: Methodology and research inferences. In *Travel and tourism research associations sixth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3: 195-198.
- Dyer, P., Gursoy, D., Sharma, B., & Carter, J.(2007). Structural modeling of resident perceptions of tourism and associated development on the Sunshine Coast, Australia. *Tourism management*. 28(2): 409-422.
- Edwards, D., Griffin, T., & Hayllar, B.(2008). Urban Tourism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35(4): 1032 - 1052.
- Ennis, N., & Douglass, G.(2011). Culture and regeneration - what evidence is there of a link and how can it be measured. *GLA Economic, Mayor of London*. 2-13.
- Eusébio, C., Vieira, A. L., & Lima, S.(2018). Place attachment, host - tourist interactions, and residents' attitudes towards tourism development: The case of Boa Vista Island in Cape Verd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6(6): 890-909.
- Falk, I., & Kilpatrick, S.(2000). What is social capital? A study of interaction in a rural community. *Sociologia ruralis*. 40(1): 87-110.

- Ferretti, V., & Grosso, R.(2019). Designing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through a behavioral decision aiding approach. *Cities*. 95: 102386.
- Fodness, D.(1994). Measuring tourist motiv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3): 555-581.
- Fornell, C., & Larcker, D. F.(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82-388.
- Fukuyama, F.(1995).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 74: 89.
- Fukuyama, F.(1999). *Social capital and Civil Society*. The Institute of Public Policy, George Mason University. October, 1: 99.
- García, F. A., Vázquez, A. B., & Macías, R. C.(2015). Resident's attitudes towards the impacts of tourism.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13: 33-40.
- Getz, D.(2008). Event tourism: Definition, evolution, and research. *Tourism Management*. 29(3): 403 - 428.
- Giuliani, M. V.(2003). *Theory of attachment and place attachment* (p. 137). na.
- Goeldner, C. R., & Ritchie, J. B.(2012).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Ed. 12). John Wiley & Sons.
- Goranczewski, B., & Puciato, D.(2011). SWOT analysis in the formulation of tourism development strategies for destinations. *Tourism/Turyzm*. 20(2): 45-53.
- Grootaert, G., Narayan, D., Nyhan Jones, V., & Woolcock, M.(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The World Bank Group*.
- Gross, M. J., & Brown, G.(2008). An empirical structural model of tourists and places: Progressing involvement and place attachment into tourism. *Tourism management*. 29(6): 1141-1151.
- Gu, H., & Ryan, C.(2007). Place attachment, identity and community impacts of tourism—the case of a Beijing hutong. *Tourism management*. 29(4): 637-647.
- Gu, Z., & Zhang, X.(2021). Framing social sustainability and justice claims in urban regener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cases in Guangzhou. *Land Use Policy*. 102: 105224.
- Gursoy, D., & Rutherford, D. G.(2004). Host attitudes toward tourism: An improved structural mod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3): 495-516.

- Gursoy, D., Chi, C. G., & Dyer, P. (2009). Locals' attitudes toward mass and alternative tourism: The case of Sunshine Coast, Australia. *Journal of travel research*, 49(3): 381-394.
- Gursoy, D., Jurowski, C., & Uysal, M.(2002). Resident attitudes: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1): 79-105.
- Güzey, Ö.(2009). Urban regeneration and increased competitive power: Ankara in an era of globalization. *Cities*, 26(1): 27-37.
- Hagger, M. S., Anderson, M., Kyriakaki, M., & Darkings, S.(2007). Aspects of identity and their influence on intentional behavior: Comparing effects for three health behavi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2): 355-367.
- Hair Jr, J. F., Sarstedt, M., Hopkins, L., & Kuppelwieser, V. G.(2014).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European Business Review*, 26(2): 106-121.
- Hair Jr, J. F., Sarstedt, M., Ringle, C. M., & Gudergan, S. P.(2017). Advanced issues i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aGe publications.
- Hair, J. F., Ringle, C. M., & Sarstedt, M.(2011). PLS-SEM: Indeed a silver bulle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9(2): 139-152.
- Hair, J. F., Sarstedt, M., Ringle, C. M., & Mena, J. A.(2012). An assessment of the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0(3): 414-433.
- Hammit, W. E., Kyle, G. T., & Oh, C. O.(2009). Comparison of place bonding models in recreatio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1(1): 57-72.
- Harrill, R.(2004).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A literature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tourism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18(3): 251-266.
- Hauge, A. L.(2007). Identity and place: a critical comparison of three identity theories. *Architectural science review*, 50(1): 44-51.
- Hawley, A. H.(1963). Community power and urban renewal succ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8(4): 422-431.
- Healey, P.(1998).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through collaborative approaches to urban plann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30(9): 1531-1546.
- Henseler, J.(2012). PLS-MGA: A non-parametric approach to partial least squares-based

- multi-group analysis. In *Challenges at the interface of data analysis, computer science, and optimization* (pp. 495-501). Springer, Berlin, Heidelberg.
- Henseler, J., Dijkstra, T. K., Sarstedt, M., Ringle, C. M., Diamantopoulos, A., Straub, D. W., ... & Calantone, R. J.(2014). Common beliefs and reality about PLS: Comments on Rönkkö and Evermann (2013).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7(2): 182-209.
- Hibbitt, K., Jones, P., & Meegan, R.(2001). Tackling social exclusion: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urban regeneration on Merseyside—from mistrust to trust?. *European planning studies*. 9(2): 141-161.
- Hidalgo, M. C., & Hernandez, B.(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73-281.
- Holbrook, M. B., & Batra, R. (1987). Assessing the role of emotions as mediators of consumer responses to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3): 404-420.
- Holbrook, M. B., & Hirschman, E. C.(1982). The Experiential Aspects of Consumption: Consumer Fantasies, Feelings, and Fu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2): 132.
- Homans, G. C.(1961). The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8): 3-6.
- Hosany, S., Prayag, G., Van Der Veen, R., Huang, S., & Deesilatham, S.(2017). Mediating effects of place attachment and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ts' emotions and intention to recommend. *Journal of Travel Research*. 56(8): 1079-1093.
- Jamal, T., & Getz, D.(1999). Community roundtables for tourism-related conflicts: The dialectics of consensus and process structure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7(3-4): 290-313.
- Jani, D.(2018).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m impacts in Kilimanjaro: An integration of the Social Exchange Theory. *Tourism: An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Journal*. 66(2): 148-160.
- Jansen-Verbeke, M., & Van Rekom, J.(1996). Scanning museum visitors: Urban tourism market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364-375.
- Jeon, C. J., & Cheong, C. M.(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local governance in urban regeneration—focused on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T/B in Jeonju.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2(3): 297-310.



- Jones, S.(2005). Community-based ecotourism: The significance of social capital.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2): 303-324.
- Jorgensen, B. S., & Stedman, R. C.(2001). Sense of place as an attitude: Lakeshore owners attitudes toward their proper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33-248.
- Jurowski, C., Uysal, M., & Williams, D. R.(1997). A theoretical analysis of host community resident reactions to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2), 3-11.
- Kang, B., Hwang, I., Lee, J., Lee, S., Lee, T., Chang, Y., & Lee, M. K.(2018, June). My being to your place, your being to my place: Co-present robotic avatars create illusion of living together. In *Proceedings of the 16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Systems, Applications, and Services* (pp. 54-67).
- Kim, N., & Shim, C.(2018). Social capital, knowledge sharing and innovation of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a tourism cluster.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30(6): 2417-2437.
- Kim, S. N., Ahn, K., & Kim, J.(2011). The effect of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on residents' social capital: A comparison between neighborhood social capital and general social capital.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71: 47-68.
- Kim, Y., Jeong, G. S., & Cheon, S. B.(2013).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ance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on Social Capita (Focused on old downtown Masan Hapogu in Changwon City).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5(2): 43-69.
- Kleinhans, R., Priemus, H., & Engbersen, G.(2007).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in recently restructured urban neighbourhoods: Two case studies in Rotterdam. *Urban studies*. 44(5-6): 1069-1091.
- Knack, S., & Keefer, P.(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 Kneafsey, M.(2000). Tourism, place identities and social relations in the European rural periphery.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7(1): 35-50.
- Ko, D. W., & Stewart, W. P.(2002).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residents' attitudes for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23(5): 521-530.
- Kock, N.(2014). Advanced mediating effects tests, multi-group analyses, and measurement

- model assessments in PLS-based SEM. *International Journal of e-Collaboration (IJeC)*. 10(1): 1-13.
- Kuo, N. T., Cheng, Y. S., Chang, K. C., & Hu, S. M.(2021). How social capital affects support intention: The mediating role of place identity.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46: 40-49.
- Kyle, G. T., Mowen, A. J., & Tarrant, M.(2004). Linking place preferences with place meaning: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motivation and place attach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4): 439-454.
- Lak, A., Gheitasi, M., & Timothy, D. J.(2020). Urban regeneration through heritage tourism: Cultural policies and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of Tourism and Cultural Change*. 18(4): 386-403.
- Lamberti, G.(2021). Hybrid multigroup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n application to bank employee satisfaction and loyalty. *Quality & Quantity*. 1-23.
- Landry, C., & Wood, P.(2012). *The intercultural city: Planning for diversity advantage*. Routledge.
- Law, C. M.(1992). Urban tourism and its contribution to economic regeneration. *Urban studies*. 29(3-4): 599-618.
- Lee, J., Kyle, G., & Scott, D.(2012). The mediating effect of place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stival satisfaction and loyalty to the festival hosting destin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51(6): 754-767.
- Lee, T. H.(2013). Influence analysis of community resident support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34: 37-46.
- Lewicka, M.(2008). Place attachment, place identity, and place memory: Restoring the forgotten city pas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8(3): 209-231.
- Li, W., Yuan, K., Yue, M., Zhang, L., & Huang, F.(2021).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s, facilitating conditions and health risk management intentions: Evidence from farmers in rural China. *Climate Risk Management*. 32: 100283.
- Lin, N.(2017).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3-28.
- Lin, N., & Erickson, B. H.(2008). Theory, measurement, and the research enterprise on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An international research program*. 1-24.

- Low, S. M., & Altman, I.(1992). *Place attachment. In Place attachment* (pp. 1-12). Springer. Boston, MA.
- Macbeth, J., Carson, D., & Northcote, J.(2004). Social capital, tourism and regional development: SPCC as a basis for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Current Issues in Tourism*. 7(6): 502-522.
- Mannetti, L., Pierro, A., & Livi, S.(2004). Recycling: Planned and self-expressive behaviour.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2): 227-236.
- Manzo, L. C.(2005). For better or worse: Exploring multiple dimensions of place mean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1): 67-86.
- Manzo, L. C., & Perkins, D. D.(2006). Finding common ground: The importance of place attachment to community participation and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0(4): 335-350.
- McCool, S. F., & Martin, S. R.(1994).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3): 29-34.
- McGehee, N. G., & Andereck, K. L.(2004). Factors predicting rural residents' support of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2): 131-140.
- McNeill, L., & Venter, B.(2019). Identity, self concept and young women's engagement with collaborative, sustainable fashionconsumption model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43(4): 368-378.
- Meng, L., & Liao, Y.(2014). Migrant Population and Social Management Changes in Urban Villages: Based on the Investigation andAnalysis of Changban Village in Guangzhou. *Journal of South-Central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4(4): 80-85.
- Miles, S., & Paddison, R.(2005). Introduction: The rise and rise of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42(5-6): 833-839.
- Milligan, M. J.(1998). Interactional past and potential: The social construction of place attachment. *Symbolic interaction*. 21(1): 1-33.
- Moghavvemi, S., Woosnam, K. M., Paramanathan, T., Musa, G., & Hamzah, A.(2017). The effect of residents' personality, emotional solidarity, and community commitment on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63: 242-254.

- Murtagh, N., Gatersleben, B., & Uzzell, D.(2012). Self-identity threat and resistance to change: Evidence from regular travel behaviour.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2(4): 318-326.
- Mwaniki, D.(2018). Global city definition. In *Proceedings of Global City Definition*. Regional Training Workshop on Human Settlement Indicators,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 Nitzl, C., Roldan, J. L., & Cepeda, G.(2016). Mediation analysis in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Helping researchers discuss more sophisticated models.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 Nunkoo, R., & Gursoy, D.(2012).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An identity perspectiv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1): 243-268.
- Nunkoo, R., & Ramkissoon, H.(2011). Developing a community support model for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8(3): 964-988.
- Okazaki, E.(2008). A community-based tourism model: Its conception and us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6(5): 511-529.
- Olya, H. G., & Gavilyan, Y.(2016). Configurational models to predict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56(7): 893-912.
- Paddison, R.(1993). City Marketing, Image Reconstruction and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30(2): 339 - 349.
- Park, D. B., Nunkoo, R., & Yoon, Y. S.(2015). Rural residents' attitudes to tourism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Tourism Geographies*. 17(1): 112-133.
- Park, H. J., & Feiock, R. C.(2002). Social capital and the tradeoff betwee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4: 3-4.
- Park, J. K.(2013). A Study on the urban Characteristics of Design for Urban Regeneration based on Cultural Strategy-Focused on the case of Ruhrgebiet, Germany. *KIEAE Journal*. 13(4): 75-86.
- Perdue, R. R., Long, P. T., & Allen, L.(1990). Resident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4): 586-599.
- Pongponrat, K., & Chantradoan, N. J.(2012). Mechanism of social capital in community tourism participatory planning in Samui Island, Thailand. *Tourismos*. 7(1): 339-349.

-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1-24.
- Prayag, G., & Ryan, C.(2012). Antecedents of tourists' loyalty to Mauritius: The role and influence of destination image, place attachment, personal involvement, and satisfac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51(3): 342-356.
- Prayag, G., Hosany, S., Nunkoo, R., & Alders, T.(2013). London residents' support for the 2012 Olympic Games: The mediating effect of overall attitude. *Tourism management*. 36: 629-640.
- Proshansky, H. M.(1978). The city and self-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10(2): 147-169.
- Proshansky, M. H., Fabian, A., & Kaminoff, R.(1983). Place-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i'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nr. 3. *Sidst set den*. 11: 13.
- Putnam, R.(1993). *Making Democracy Work-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 - 78.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Vol. 67). London: Pion. 1-5.
- Relph, E.(2007). Spirit of place and sense of place in virtual realities. *Techné: Research in philosophy and technology*. 10(3): 17-25.
- Rigdon, E. E.(2016). Choosing PLS path modeling as analytical method in European management research: A realist perspective. *European Management Journal*. 34(6): 598-605.
- Ro, J., & Koo, J.(2012). The analysis of an impact of resident activities on social capital i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ing projects: focus on the case of the KURCs Testbed Jeonju. *Journal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4(4): 115-130.
- Roberts, P., & Sykes, H. (Eds.)(1999).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Sage.
- Sarstedt, M., Hair, J. F., Ringle, C. M., Thiele, K. O., & Gudergan, S. P.(2016). Estimation issues with PLS and CBSEM: Where the bias li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10):

3998-4010.

- Sasaki, M.(2010). Urban regeneration through cultural creativity and social inclusion: Rethinking creative city theory through a Japanese case study. *Cities*. 27: S3-S9.
- Sensenbrenner, J., & Portes, A.(2018).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In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pp. 93-115). Routledge.
- Shamai, S.(1991). Sense of place: An empirical measurement. *Geoforum*. 22(3): 347-358.
- Sharma, B., & Gursoy, D.(2014). An examination of changes in residents' perceptions of tourism impacts over time: The impact of reside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0(12): 1332-1352.
- Shtudiner, Z. E., Klein, G., & Kantor, J.(2018). How religiosity affects the attitudes of communities towards tourism in a sacred city: The case of Jerusalem. *Tourism Management*. 69: 167-179.
- Siisiainen, M.(2003). Two concepts of social capital: Bourdieu vs. Putnam.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sociology*. 40(2): 183-204.
- Stylidis, D.(2020). *Residents' destination image: a perspective article*. Tourism Review.
- Thammajinda, R.(2013). *Community participation and social capital in tourism planning and management in a Thai context* (Doctoral dissertation, Lincoln University).
- Timothy, D. J.(2014).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and tourism: Development issues and emerging trends. *Public Archaeology*. 13(1-3): 30-47.
- Tuan, Y. F.(1975). *Place: An Experiential Perspective*. Geographical Review. 65(2): 151.
- Tuan, Y. F.(1979). Space and place: humanistic perspective. In *Philosophy in geography* (pp. 387-427). Springer. Dordrecht.
- Twigger-Ross, C. L., & Uzzell, D. L.(1996). Place and identity process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3): 205-220.
- Ujang, N.(2017). Place attachment and continuity of urban place identity. *Asian Journal of Environment-Behaviour Studies*. 2(2): 117-132.
- Ujang, N., & Zakariya, K.(2015). The notion of place, place meaning and identity in urban regeneratio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70: 709-717.
- Um, S., & Crompton, J. L.(1987). Measuring resident's attachment levels in a host community.

- Journal of travel research*, 26(1): 27-29.
- Vargas-Sánchez, A., do Valle, P. O., da Costa Mendes, J., & Silva, J. A.(2015). Residents' attitude and level of destination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ourism Management*. 48: 199-210.
- Vaske, J. J., & Kobrin, K. C.(2001). Place attachment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2(4): 16-21.
- Vieira, I., Rodrigues, A., Fernandes, D., & Pires, C.(2016).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management of tourism in fostering residents' support to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evidence from a Portuguese historic tow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Policy (IJTP)*. 6(2): 109-135.
- Wang, S., & Chen, J. S.(2015). The influence of place identity on perceived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52: 16-28.
- Wang, S., Chen, S., & Xu, H.(2017). Resident attitudes towards dark tourism, a perspective of place-based identity motives. *Current Issues in Tourism*. 22(13): 1601-1616.
- Wang, Y., Shen, H., & Ye, S.(2020). Being rational and emotional: An integrated model of residents' support of ethnic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44: 112-121.
- Warf, B.(Ed.). (2006).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Sage.
- Wilks, L.(2011).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at music festivals. *Journal of Policy Research in Tourism, Leisure and Events*. 3(3): 281-297.
- Williams, D. R., & Vaske, J. J.(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830-840.
- Williams, D. R., McDonald, C. D., Riden, C. M., & Uysal, M.(1995). Community attachment, regional identity and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In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Travel and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Proceedings*. Wheat Ridge, CO: Travel and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424-428.
- Williams, D. R., Patterson, M. E., Roggenbuck, J. W., & Watson, A. E.(1992). Beyond the commodity metaphor: Examining emotional and symbolic attachment to place. *Leisure sciences*. 14(1): 29-46.
- Winterton, R., & Warburton, J.(2012). Ageing in the bush: The role of rural places in

- maintaining identity for long term rural residents and retirement migrants in north-east Victoria, Australia. *Journal of Rural Studies*. 28(4): 329-337.
- Wolf, I. D., Stricker, H. K., & Hagenloh, G.(2015). Outcome-focused national park experience management: Transforming participants, promoting social well-being, and fostering place attach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3(3): 358-381.
- Woolcock, M.(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51-208.
- Woolcock, M., & Narayan, D.(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225-249.
- Yarker, S.(2018). Tangential attachments: Towards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impacts of cultural urban regeneration on local identities. *Urban Studies*. 55(15): 3421-3436.
- Yuan, Q., Song, H., Chen, N., & Shang, W.(2019). Roles of tourism involvement and place attachment in determining residents' attitudes toward industrial heritage tourism in a resource-exhausted city in China. *Sustainability*. 11(19): 5151.
- Zhang, Y., Xiong, Y., Lee, T. J., Ye, M., & Nunkoo, R.(2021). Sociocultural sustainability and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from community-based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60(3): 656-669.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8

뉴제주일보(2021). "제주도의회, 전국 최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66032>

제주신보(2015). "제주 개발의 신호탄 신제주 개발 공사 착공".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5858>, 2019년

3월27일 19:53.

제주특별자치도(2021).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설 문 지】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 지역주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오신애입니다. 저는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중 관광관련 사업'을 사례로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사업종료 이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중 관광관련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및 지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통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학술적 연구를 위한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0월

지도교수 : 정승훈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연구자 : 오신애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

연락처 : 이메일 teatime83@naver.com, 010-9430-9571

####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옛 제주성이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4개 동에 걸쳐 관덕정 광장 등 역사·문화자원과 동문시장 등을 활용한 원도심 중심 기능 회복을 목표로 역사·경관·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오래된 미래 모관, 옛것을 살려 미래를 일구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커뮤니티 회복과 사회적 돌봄, 주민교육과 교류 등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와 지지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15개 사업 중에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 칠성로 문화시장 조성사업, 도심을레길 조성 사업이 관광 분야와 연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광해군'이라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상품화 하였고, 칠성로를 중심으로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상생협약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여 '칠성로를 중심으로 한 문화시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옛길을 중심으로 한 걷기 좋은 '원도심 산책길' 도보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코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 장소 정체성, 관광 개발 지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I.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 관련 질문입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이 지역의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들은 나를 기꺼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대표자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에 지자체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 규범을 인식하고 준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지역주민들은 공공 사업에 기꺼이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공공사업에 대해 이웃과 좋은 협력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이 지역 주민들과 암묵적 이해를 할 수있는 사이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지역사회 단체, 동호회, 동창회 등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이웃과 상호 교류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급한 일이 생기면 가족 외에 도움을 요청 할 주변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매년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공활동(봉사활동 등)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장소 정체성 관련 질문입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이 지역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이 지역의 생활방식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이 지역이 매우 친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누가 이 지역에 대해 묻는다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I.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이 사업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사업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 지역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관광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관광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원도심이 지속 가능한 관광지가 되었으면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관광개발사업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해 나갔으면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관광개발사업의 진흥에 동의하며 기꺼이 협력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8) 관광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활동을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9)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장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사업을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1) 남성       (2)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3. 귀하의 결혼유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미혼       (2) 기혼       (3) 기타(      )

4. 귀하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고졸 이하                       (2) 전문대학(2년/3년제 대학) 졸업  
 (3) 대학 재학                       (4) 대학교(4년제) 졸업  
 (5) 대학원 졸업                       (6) 기타 (                      )

5. 귀하의 직업 또는 고용에 대한 현재 상태는?

- (1) 전문/관리직                       (2) 농/임/축/어업                       (3) 사무직/회사원  
 (4) 학생                       (5) 판매직/서비스직                       (6) 주부  
 (7) 자영업                       (8) 은퇴자                       (9) 기타

6.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제주시 원도심 지역                       (2) 제주도내 타 지역                       (3) 육지 지역

7. 귀하의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은?

- (1) 1년 - 5년 미만                       (2) 5년 - 10년 미만                       (3) 10년 - 15년 미만  
 (4) 15년 - 20년 미만                       (5) 20년 - 25년 미만                       (6) 25년 이상

8. 귀하의 출생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제주시 원도심 지역                       (2) 제주도내 타 지역                       (3) 육지 지역

9. 귀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예                       (2) 아니오

9-1. (위 9문항에서 “예”라고 응답하신 분만 응답)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신 경우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가장 대표적으로 참여했거나 참여 중에 있는 한 가지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2) 도시재생 교육 및 주민설명회 등에 참여  
 (3) 도시재생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

10.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세금이나 기타 공제 전의 월평균 총 소득)

-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200만원 미만  
 (3)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4) 300만원이상~400만원 미만  
 (5) 4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6) 500만원이상~600만원미만  
 (7) 600만원이상~700만원 미만               (8) 700만원이상~800만원 미만  
 (9) 800만원이상

## ABSTRACT

### The Effect of Local Residents' Social Capital on Urban Regeneratio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on Place Identity and Tourism Development Support

: Focusing on original downtown(Mogwan district) of Jeju City

Shin-Ae Oh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Recently, areas wher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being promoted are attracting attention as tourist destinations. This means that the city is being recognized as an attractive place, and that the uniqueness and specificity of the city is increasing its potential as a tourism resource. However, much attention and continuous efforts are still required to restore and revitalize the urban vitality of the old downtown. In this study, I have paid attention to the social capital, place identity,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of local residents where urban regeneratio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are being promoted as a strategy for revitalizing the declining old city center.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residents, who are major stakeholders in the urban regeneration tourism development projec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place identity,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was examined by applying the C-A-B(Cognition-Affect-Behavior) model. To this end,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the original downtown (Mogwan district) of Jeju City were gathered, and the data from the survey collected from 323 local residents were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results, social capital consisting of social trust,

social norms, and social networks of local residents subject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old city center of Jeju City affects the formation or improvement of place identity, and thi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upport for comprehensive tourism development includ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place identity acts as a mediator in the path to support tourism development affected by social capital. In particular, the path coefficients between place identity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was the largest, revealing that these two variables are very closely influenced one another. This means that the improvement of 'cognition' of social capital represented by social trust, social norms and social networks reinforces 'affect', which interacts with human relations centered on local places, which plays a role in triggering the 'behavior' of supporting tourism development by local residen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social capital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place identity were confirmed on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each factor, and place identity was approved its mediating role in supporting tourism development including urban regeneratio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are the basic elements that can improve place identity through the result that enhancing the place identity of community members is most effective in increasing support for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building trust and collaboration with local residents in related fields in the future, laying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local residents, a major stakeholder in urban regeneratio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and provid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building trust and collaboration with local residents in related fields in the future.

Keywords: urban regeneration, tourism development, social capital, place identity, tourism development support.